

이화여대논술

인문계열

목차

2026학년도 인문계열 I · II	3
인문 I · 문항 1	3
인문 I · 문항 2	6
인문 I · 문항 3	9
인문 II · 문항 1	14
인문 II · 문항 2	18
인문 II · 문항 3	22
2025학년도 인문계열 I · II	25
인문 I · 문항 1	25
인문 I · 문항 2	27
인문 I · 문항 3	30
인문 II · 문항 1	34
인문 II · 문항 2	38
인문 II · 문항 3	41
2024학년도 인문계열 I · II	45
인문 I · 문항 1	45
인문 I · 문항 2	48
인문 I · 문항 3	51
인문 II · 문항 1	55
인문 II · 문항 2	59
인문 II · 문항 3	62

2026학년도 인문계열 I · II

인문 I · 문항 1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세계는 불연속적인 자극들이 끊임없이 충돌하고 상호 침투하는 혼돈의 장이지만, 우리가 이러한 자극과 혼돈을 경험하는 경우는 드물다. 우리는 견고한 질서를 갖춘 일상 세계를 위협하는 것들을 감각하지 않아야 삶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베르그송은 이러한 태도를 낳는 정신의 성향을 가리켜 ‘삶에의 주의(注意)’라 표현한다. ‘주의’란 분산된 정신을 한데 모아 균형을 제공하는 것으로, ‘삶에의 주의’는 환경에 적응하고자 정신을 집중하여 신체에 유입되는 정보를 토대로 적절한 행위를 선택하는 경향을 가리킨다.

인간 존재가 ‘삶에의 주의’에 의거하여 전체가 아닌 필요한 부분만을 취사선택하는 대표적인 예는 지각과 인식이다. 먼저 감각 기관을 통해 대상을 파악하는 지각에 대해 살펴보자. 우리는 사물을 보통 범주화하여 지각한다. 눈앞의 컵은 다른 컵과는 다른 그 컵만의 미묘한 뉘앙스와 고유한 질감을 가지고 있음에도, 우리는 그것을 개별자가 아닌 컵이라는 일반적 대상으로 받아들인다. 이성적 사유를 통해 대상을 파악하는 인식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우리는 추상화와 일반화를 통해 개념을 만들어 내며, 그렇게 만들어진 개념을 토대로 무언가를 사유하고 추론하며 판단한다. 추상화란 여러 개체들 사이에서 공통 속성을 추려내는 작업을 일컫는 것으로서, 이 과정에서 개체들의 차이와 특이성은 배제되고 만다. 일반화란 추상화를 통해 추려낸 공통 속성을 공유하는 유개념을 만든 후 대상들을 그 유개념에 끼워 맞추는 작업을 일컫는 것으로서, 이때 유개념에 맞게 그 속성이 임의로 보태지기도 하고 제거되기도 하는 식으로 변형이 이루어진다. 베르그송은 인간의 지각과 인식이 유용성의 논리에 복속되어 보다 용이하게 사물들을 분류하고 관리하고자 왜곡을 감행하고 있는 것뿐이라고 지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르그송은 우리가 지각과 인식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고 말한다. 베르그송에 따르면 생명체 중에서도 고등한 존재자인 인간에게는 ‘삶에의 주의’와는 다른, ‘정신의 주의’가 존재한다. 그는 ‘정신의 주의’를 통해 소환되는 기억은 반복을 통해 학습된 기억과는 구분되는 것이라고 하면서, 그것은 반복 불가능하고 우발적이며 무용한 기억으로서, 과거 경험의 세부 사항들을 보존하고 있어 ‘탁월한 기억’이라고 말한다. 예술가들은 시각 기관에 의해 포착된 상(像) 이면의 모습을, 청각 기관에 의해 들린 음향 너머의 소리를 포착하고자 노력함으로써 ‘삶에의 주의’에 매몰된 사람들의 지각 기능을 확장해 주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예술가들이 발견해 낸 세계의 모습은 허구가 아니라, 우리가 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경험에서 배제된 것들로, 이는 ‘주의의 전향’을 끊임없이 시도하는 노력을 통해 얻어진 것이라고 그는 말한다. 베르그송이 자신의 예술론에서 예술가들은 탁월한 관찰자를 넘어선 탁월한 실천자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는 것은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나]

문학비평가 다르코 수빈은 SF를 인지와 낯섬의 상호작용인 ‘인지적 낯섬’이 나타나는 장르로 규정하였다. 인지한다는 것은 어떤 대상을 경험을 통해 이해하는 것이고, 어떤 대상을 낯설게 느낀다는 것은 실제로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새롭게 느끼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인지와 낯섬은 반대의 위치에 있다. 하지만 수빈은 SF가 인지와 낯섬을 동시에 갖추고 있다고 보았다. 그는 작가의 경험적 환경에 대안이 되는 상상의 틀이 SF의 주요 형식적 장치가 된다고 했는데, 이때 작가의 경험적 환경은 우리가 실제 살고 있는 현실을 의미하며 이는 현재 과학 기술의 수준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다. 따라서 작가의 경험적 환경은 모두에게 익숙하게 느껴지는 인지의 영역에 해당한다. 하지만 상상의 틀은 다르다. 예를 들어 어떤 SF 작품에 빛의 속도로 이동하는 우주선이 있다고 하자. 수빈은 SF 작가가 고안한 낯선 것이 단지 작가의 상상력을 표현하는 작품 속 장치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독자에게 낯섬을 유발하는 것으로 보았다.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것을 바라보며 느낀 이 낯섬은, 사람들이 실제로 경험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낯섬으로 이어진다.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현실을 낯설게 느끼며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게 된 것이다. 수빈은 SF의

낮췄을 단지 새로운 것을 접하며 느끼는 것에 그치지 않고 현실을 바라보는 다른 시각을 제공함으로써 현실을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문항 1] 제시문 [가]의 ‘예술가’의 행위와 제시문 [나]의 ‘작가’의 행위를 비교하여 논하시오. [30점]

■ 예시 답안

제시문 [가]의 베르그송의 논리에 따르면 인간은 환경에 적응하고 생존하기 위해 이 세계의 자극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대신 범주화를 통한 ‘지각’, 일반화와 추상화를 통한 ‘인식’ 등에서와 같이 필요한 부분을 취사선택하여 받아들인다. ‘삶에의 주의’를 통해 이루어지는 이러한 선택은 유용성의 논리에 따라 보다 용이하게 사물들을 분류하고 관리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이루어진다. 그러나 ‘삶에의 주의’에서 ‘정신의 주의’로 ‘주의의 전향’을 꾀하는 예술가들은 이러한 선택을 통해 우리의 경험에서 배제된 것들, 반복 불가능하고 우발적이며 무용한 것들을 포착하기 위해 노력한다.

제시문 [나]에서 수빈은 SF 문학을 ‘인지적 낯센’이 나타나는 장르로 규정한다. 어떤 대상을 경험을 통해 아는 ‘인지’와, 경험한 적이 없는 대상에 대해 느끼는 ‘낯센’은 일반적으로 반대의 상태로 인식되는데, SF 작가들은 이 ‘인지’와 ‘낯센’을 동시에 갖추고자 한다. 수빈은 SF 작가들의 이러한 창작 행위를 통해 독자들이 단지 새로움을 느끼는 것을 넘어서 현실을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하는 도구를 가지게 된다고 보았다.

이렇게 볼 때, 제시문 [가]의 ‘예술가’와 제시문 [나]의 ‘작가’는 그들의 창작 행위를 통해 우리가 익숙하고 당연하게 생각해 온 것들에 갇혀 있는 인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더 넓고 깊고 새로운 인식에 이를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다만 제시문 [가]의 ‘예술가’가 이미 경험한 것 가운데 배제된 것들에 주목하고, ‘정신의 주의’를 통해 과거 경험의 세부 사항들을 보존하고 있는 ‘탁월한 기억’을 소환함으로써 지각과 인식의 한계를 극복하려 한다면, 제시문 [나]의 ‘작가’는 상상을 통해 현재 과학 기술로는 경험할 수 없는 ‘낯센’의 새로운 세계를 통해 현실을 바라보는 다른 시각을 제공하여 인지 영역의 한계를 확장한다는 점에서 차이점을 보인다.

■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1	‘예술가’의 행위에 대한 제시문 [가]의 견해 서술 - 인간이 이 세계의 자극을 받아들일 때 전체가 아니라 필요한 부분만 취사선택하여 지각하고 인식함을 서술함. - 대표적인 예로 지각에서의 ‘범주화’, 인식에서의 ‘추상화’와 ‘일반화’에 의한 왜곡이 있음을 서술함. - 예술가들이 ‘주의의 전향’을 꾀함으로써 경험에서 배제된 것들을 포착하기 위해 노력함을 서술함.	8
	‘작가’의 행위에 대한 제시문 [나]의 견해 서술 - SF 문학을 ‘인지적 낯센’이 나타나는 장르로 규정한 문학비평가 수빈의 견해를 서술함. - ‘인지’와 ‘낯센’에 대한 일반적 인식과, SF 작가들이 인지와 낯센을 동시에 추구한다는 점을 서술함. - SF의 낯센이 독자에게 가져오는 변화나 효용에 대해 서술함.	8
	제시문 [가]의 ‘예술가’의 행위와 제시문 [나]의 ‘작가’의 행위 비교 - ‘예술가’와 ‘작가’의 행위는 인간의 인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그 영역을 넓히는 효과를 보인다는 점에서 유사하다는 점을 서술함. - [가]의 예술가가 이미 경험한 것 중 배제된 것에 주목하는 반면, [나]의 작가는 이제까지 경험할 수 없었던 상상의 세계를 구현하여 현실을 바라보는 다른 시각을 제공한다는 차이를 서술함.	10
	형식의 완결성 - 답안 서술 구조의 완결성, 어휘 및 문장 전체의 표현력, 분량 배분	4

인문 I · 문항 2

※ [1~3] 공통 제시문 중 문항 2에 사용되는 제시문 [다]·[라]만 실는다. (제시문 [가]·[나]는 앞 문항(인문 I · 문항 1) 참고)

[다]

하먼은 아름다움과 지식의 차이가 객체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서 비롯된다고 보았다. 그는 객체를 내부 구성 요소로 설명하거나 외부에 미치는 효과로 설명하는 것을 지식이라고 보았다. 예를 들어 양초에 대해 왁스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설명하거나, 연소하면서 빛을 내는 역할을 한다고 설명하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그는 객체를 어느 방향으로도 환원하지 않으면서 객체에 초점을 맞추는, 즉 지식과 무관한 인지 활동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인지 활동이 곧 예술이고, 우리는 그러한 예술에서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다. 하먼은 예술의 아름다움이 은유의 방식으로 나타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지각할 수 없는 객체와 지각할 수 있는 성질 사이의 긴장으로 이루어진 은유에 관심을 가졌다. 사람들이 교사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떠오르는 교사의 고유한 특성들이 있다. 예컨대 “교사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사람이다.”와 같은 직서적(直敍的) 표현에서 우리는 교사의 성질을 쉽게 파악할 수 있고, 이때의 교사는 우리가 지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객체이다. 이러한 표현은 미적 효과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그런데 “교사는 양초이다.”라는 은유에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사를 생각할 때 떠올리지 않는 양초의 성질이 교사와 결합하면서, ‘양초 같은 교사’라는 객체는 환원하기로 표현할 수 없고 지각으로 파악할 수 없는 존재가 된다. 이때 이 문장을 접한 이들은 교사라는 객체와 양초의 성질 사이의 긴장 속에서 유추를 활용하여 객체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아름다움을 느끼게 된다.

[라]

먼바다 쪽 하늘에서 붉은 노을과 검은 노을이 어지럽게 뒤엉키고 녹녹한 바람이 불어오면 오른쪽 무릎 관절이 쭈셨다. 다음날 비가 내렸다. 여름 장마 때는 임진년 울포 싸움에서 총 맞은 왼편 어깨가 결렸고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면 무릎과 허리가 함께 아팠다. 허리의 통증이 허벅지와 장딴지의 신경을 타고 내려가 발가락 끝까지 저렸다. (중략)

서울 의금부 형틀에 묶여 있을 때, 임금의 형장(刑杖)은 몸을 가득 채우며 파고들었다. 눈앞에 캄캄한 절벽이 일어섰고 매가 거둬질 때마다 절벽은 흰빛으로 부서져 나갔다. 그리고 또 절벽이 일어섰다. 형장이 내 하반신에 닿을 때, 적탄에 맞은 왼쪽 어깨뼈 속까지 아픔의 번개들이 치받고 올라왔다. 임금의 형장이 적탄의 상처에 포개질 때마다 나는 수없이 혼절했다. 정신이 돌아오는 사이사이에 나를 심문하는 위관의 목소리가 들렸다. (중략)

혼절과 혼절 사이에서 나는 아무것도 대답할 수 없었다. 위관의 질문은 답변을 예비하고 있었으므로 나는 아무것도 답변할 수 없었다. 위관은 집요했으나, 아무것도 묻고 있지 않았다. 아마도 거기에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임금뿐이었다. 임금은 나를 죽여서 사직을 보존하고 싶었을 것이고 나를 살려서 사직을 보존하고 싶었을 것이었다.

히데요시가 전 일본의 군사력을 휘몰아 직접 군을 지휘하며 바다를 건너올 것이라는 풍문 앞에 조정은 무겁게 침묵하고 있었다. 나를 죽이면 나를 살릴 수 없기 때문에 임금은 나를 풀어 준 것 같았다. 그러므로 나를 살려 준 것은 결국은 적이었다. 살아서, 나는 다시 나를 살려 준 적 앞으로 나아갔다. 세상은 뒤엉켜 있었다. (중략)

[A]

의금부에서 풀려난 뒤부터, 추운 날에는 허리가 결렸고 왼쪽 무릎이 시리고 쭈셨다. 무릎이 시릴 때, 두 다리가 땅을 밟지 못하는 것처럼 얼얼했다. 뱃속의 구멍으로 찬 바닷바람이 드나드는 듯싶었다. 뱃속을 드나드는 바람은 내 몸 안에 들어와서 살고 있는 임금의 숨결이며 기침 소리처럼 느껴졌다. 내 어깨에는 적이 들어와 살았고, 허리와 무릎에는 임금이 들어와 살았다. 활을 당겨 표적을 겨눌 때 나는 내 어깨에 들러붙은 적을 느꼈고 칼의 세(勢)를 바꾸려고 몸을 돌릴 때 나는 내 허리와 무릎 속에서 살고 있는 임금을 느꼈다. 시린 무릎으로 땅을 온전히 딛지 못할 때도 내 몸은 무거웠다. 적과 임금이 동거하는 내 몸은 새벽이면 자주 식은땀을 흘렸다. 구들에 불을 때지 않고 자는 밤에도 땀은 흘렸다.

[문항 2] 제시문 [다]의 관점으로, 제시문 [라]의 [A]의 ‘미적 효과’에 대해 설명하시오. [30점]

■ 예시 답안

제시문 (다)는 객체를 제대로 인식하기 위한 하만의 예술론을 설명하고 있다. 하만은 객체를 인식하는 데 있어서 직서적 표현으로 내부 구성이나 외부에 미치는 효과를 설명하는 지식과는 달리, 객체를 어느 방향으로도 환원하지 않으면서도 아름다움을 느끼게 하는 인지 활동인 예술에 주목하였다. 이때 예술의 아름다움은 은유의 방식일 때 잘 드러나는데, 은유는 지각할 수 없는 객체와 지각할 수 있는 성질 사이의 긴장으로 미적 효과를 발생시킨다. 독자는 은유를 경험하며 객체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예술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된다.

제시문 (라)의 ‘나’는 의금부에서 풀려난 이후 아픈 몸 때문에 매 순간 고통스러워한다. “뺨속을 드나드는 바람은 내 몸 안에 들어와서 살고 있는 임금의 숨결이며 기침 소리”, “내 어깨에는 적이 들어와 살았고, 허리와 무릎에는 임금이 들어와 살았다.”, “적과 임금이 동거하는 내 몸” 등의 표현은 직서적으로 그 의미를 알 수 없고 환원할 수도 없다. 그러나 “내 몸의 상처”(객체)와 ‘적과 임금’(성질)의 관계를 은유적으로 이해할 때 그 미적 효과를 느낄 수 있다.

소설 속에서 살펴보면, 왜구의 적탄과 임금의 형장 때문에 생긴 ‘내’ 몸의 상처는 지속적으로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두려운 적과 임금을 반복적으로 떠올리게 만든다. 그 과정에서, “적과 임금이 살고 있는 ‘내’ 몸의 상처”는 ‘내’가 죽여야 하는 적이 ‘나’를 살리기도 하고, ‘내’가 지켜야 했던 임금은 나를 죽이려 하다가 ‘나’를 살려주는 모순적인 상황을 잘 보여준다. 또한 ‘내’ 몸의 상처는 적들이 남긴 고통과 두려움의 기억이면서 실제의 적인 왜구와 내부의 적인 임금이 살고 있는 또 다른 비극적인 전쟁터가 된다.

이와 같이 제시문 [라]는 [A]의 은유적인 표현을 통해, 적과의 전쟁과 임금과의 갈등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내’가 겪는 신체적이면서도 정신적인 모순성과 비극성을 예술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다.

■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2	제시문 (다)에서 제시하는 하만의 은유 이론 요약 - 하만은 객체를 인식하는 데 있어서 직서적 표현으로 내부 구성이나 외부에 미치는 효과를 설명하는 지식과는 달리, 객체를 어느 방향으로도 환원하지 않으면서도 아름다움을 느끼게 하는 인지 활동인 예술에 주목함. - 하만은 예술의 아름다움이 은유의 방식일 때 잘 나타난다고 주장, 이때 은유는 지각할 수 없는 객체와 지각할 수 있는 성질 사이의 긴장으로 미적 효과를 발생시킴. - 독자는 은유 속에서 객체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예술의 아름다움을 느낌.	10
	제시문 (라)의 [A]의 미적 효과와 내용 이해 - “뺨속을 드나드는 바람은 내 몸 안에 들어와서 살고 있는 임금의 숨결이며 기침 소리”, “내 어깨에는 적이 들어와 살았고, 허리와 무릎에는 임금이 들어와 살았다.”, “적과 임금이 동거하는 내 몸” 등의 은유적 표현. - “적과 임금이 살고 있는 ‘내’ 몸(의 상처)”(객체)은 직서적으로 표현할 수 없고 환원할 수 없는데, 은유적으로 이해할 때 그 미적 효과를 찾을 수 있음. - ‘내’ 몸의 상처는 왜구의 적탄과 임금의 형장 때문에 생겨 지속적으로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적과 임금을 반복적으로 떠올리게 함. - “적과 임금이 살고 있는 ‘내’ 몸의 상처”는 ‘내’가 죽여야 하는 적이 ‘나’를 살리기도 하고, ‘내’가 지켜야 했던 임금은 나를 죽이려 하다가 ‘나’를 살리는 모순적인 상황을 잘 보여줌. 그리고 ‘내’ 몸의 상처는 적들이 남긴 고통과 두려움의 기억이면서 실제의 적인 왜구와 내부의 적인 임금이 살고 있는 또 다른 전쟁터가 됨. - [A]의 은유적 표현은, 적과의 전쟁과 임금과의 갈등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내’가 겪는 신체적·정신적 모순성과 비극성을 예술적으로 잘 보여줌.	15
	형식의 완결성 - 답안 서술 구조의 완결성, 어휘 및 문장 전체의 표현력, 분량 배분	5

인문 I · 문항 3

※ [1~3] 공통 제시문 중 문항 3에 사용되는 제시문 [마]·[바]·[사]만 실는다. (제시문 [가]~[라]는 앞 문항(인문 I · 문항 1, 2) 참고)

[마]

철학자 플로리디는, 우리가 사는 세계 속의 경험은 더 이상 로그인된 정보 세계와 로그아웃된 물리 세계의 경험으로 구분되지 않으며, 인간이 자신을 독립적 존재라기보다 상호 연결된 정보적 유기체인 ‘인포그(inforg)’로 이해한다고 본다. 인포그로서 인간은 다른 생물학적 행위자들 및 공학적 인공물들과 함께 궁극적으로 정보로 이루어진 총체적 환경인 인포스피어(infosphere)를 공유한다. 인포스피어는 많은 부분 인간의 개입 없이 수많은 정보 장치들과 알고리즘, 인공 지능의 작동을 통해 정보의 처리가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우리가 사는 실질적 생활 환경 전체를 총칭하는 말이다. 플로리디는 인포그로서의 인간이 인포스피어와 맺는 관계는 인간과 기술, 그리고 대상이나 세계와의 관계에 대한 인식의 근본적인 전환을 요구한다고 주장한다. 인간과 기술의 관계는 단순히 주체와 객체, 자연과 문화라는 이분법적 구도를 통해서 이해될 수 없다. 인간은 더 이상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주체도 아니며, 세계의 중심도 만물의 척도도 입법자도 아니다. 인간이 아닌 정보의 관점에서 보면 인포스피어에 거주하는 모든 존재자나 행위자는 모두 동등하게 정보적이라는 면에서 어떤 물리적 차이도 없다.

플로리디는 인포스피어에 거주하는 모든 존재자는 정보적 존재자로서 내재적인 도덕적 가치를 지닌다고 보았다. 이는 칸트의 입장과 대비된다. 칸트는 어떤 것이 갖는 가치를, 그것이 수단으로서 갖는 도구적 가치와 목적으로서 갖는 내재적 가치로 구분한다. 도구적 가치는 어떤 것이 특정한 목적의 달성 수단으로서 갖게 되는 상대적 가치이며, 그것을 도구로 사용하는 행위자의 관심이나 이해관계에 의존하는 우연적 가치이다. 이에 비해 목적으로서 갖는 내재적 가치는 해당 존재자가 그 자체로 갖는 가치로, 침해될 수 없는 절대적 가치이다. 칸트는 그러한 가치를 존엄성이라 부르며, 인격적 존재인 인간만이 목적적 존재로서 그러한 존엄성을 갖는다고 생각한다. 이를 바탕으로 칸트의 윤리학에서 도덕적 행위자는 자신의 행위에 책임질 수 있는 존재이며, 그 외연은 인격적인 존재로서의 인간에 한정된다. 플로리디는 이와 같이 행위자의 우선성을 가정하는 윤리적 담론 구조를 전복한다. 그는 정보적인 상호 작용에서 모든 정보적 존재자들은 도덕적 행위의 전승자인 행위자나 행위의 수신자로서 정보적 대상으로 인식되고 해석되는 피동자로 분류될 수 있다고 보고, 피동자를 도덕적 관심의 중심으로서 윤리적 담론의 핵심에 위치시킨다. 도덕적 책임을 질 수 있는 행위자의 관점이 아니라, 도덕적 책임을 질 수 없더라도 행위자에게 도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피동자의 관점에서 도덕을 설명하려 한 것이다. 피동자에는 인격체나 생물뿐 아니라 기술이나 인공물이 포함되는데, 플로리디는 칸트가 말하는 내재적 가치를 피동자 중심의 윤리학과 결합한다. 그에 따르면 정보적 구조로 분석될 수 있는 모든 존재자는 도덕적 피동자로서 그 자체로 내재적인 가치를 가지며, 단지 있는 그대로 그것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도 그 본성에 적합한 방식으로 실존하고 발전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플로리디의 피동자 중심 윤리학은 도덕적 행위를 하는 주체의 관점이 아니라, 행위로 인하여 영향을 받게 되는 피동자의 관점에서 접근한다. 이를 통해 인포스피어에 거주하는 정보적 존재자는 최소한의 존중과 보호를 받을 자격을 갖는다. 지금까지 도덕적 공동체에서 배제되어 있던 모든 종류의 존재들이 도덕적으로 유의미하고 중요한 존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놓은 것이다.

[바]

Prior to the develop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AI), information technology comprised tools that carried out functions as dictated by humans. AI's effects on human knowledge, however, are paradoxical. On the one hand, AI intermediaries* can navigate and analyze bodies of data vaster than the unaided human mind could have previously imagined. On the other, this power—the ability to engage with vast bodies of data—may also accentuate forms of manipulation and error. AI is capable of exploiting human passions more effectively than traditional propaganda*. Having tailored itself to individual preferences and instincts, AI draws out responses its creator or user desires. Similarly, the deployment* of AI intermediaries may

also amplify inherent biases, even if these AI intermediaries are technically under human control. The dynamics of market competition prompt social media platforms and search engines to present information that users find most compelling. As a result, information that users are believed to want to see is prioritized, distorting a representative picture of reality. Much as technology accelerated the speed of information production and dissemination* in the nineteenth and twentieth centuries, in this era, information is being altered by the mapping of AI onto dissemination processes.

*intermediary: 매개체, propaganda: 선전, deployment: 배치, dissemination: 전파

[사]

어느 나그네가 나에게 이런 말을 했다.

“어제저녁엔 아주 처참한 광경을 보았습니다. 어떤 불량한 사람이 큰 몽둥이로 돌아다니는 개[犬]를 쳐서 죽이는데 보기도 너무 참혹하여 실로 마음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맹세코 개나 돼지의 고기를 먹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나는 이렇게 대답했다.

“어떤 사람이 불이 이글이글하는 화로를 끼고 앉아서 이[蟲]를 잡아서 그 불 속에 넣어 태워 죽이는 것을 보고 나는 마음이 아파서 다시는 이를 잡지 않기로 맹세했습니다.”

그 나그네는 실망하는 듯한 표정으로,

“이는 미물이 아닙니까? 나는 덩그렇게 크고 육중한 짐승이 죽는 것을 보고 불쌍히 여겨서 한 말인데, 당신은 구태여 이를 예로 들어서 대꾸하니 이것은 필연코 나를 놀리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대들었다. 나는 좀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를 느꼈다.

“무릇 피[血]와 기운[氣]이 있는 것은 사람으로부터 소, 말, 돼지, 양, 벌레, 개미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한결같이 살기를 원하고 죽기를 싫어합니다. 어찌 큰 놈만 죽기를 싫어하고 작은 놈만 죽기를 좋아하겠습니까? 그런즉 개와 이의 죽음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큰 놈과 작은 놈을 적절히 대조한 것이지 당신을 놀리기 위해서 한 말은 아닙니다. 당신이 내 말을 믿지 못하겠으면 당신의 열 손가락을 깨물어 보십시오. 엄지손가락만이 아프고 그 나머지는 안 아릅니까? 한 몸에 붙어 있는 큰 지절(支節)과 작은 부분에 골고루 피와 고기가 있으니 그 아픔은 같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물며 각기 기운과 숨을 받은 자로서 어찌 저놈은 죽음을 싫어하고 이놈은 좋아할 리가 있겠습니까? 당신은 물러가서 눈 감고 고요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하여 달팽이의 뿔을 쇠뿔과 같이 보고, 메추리를 대붕(大鵬)과 동일시하도록 해 보십시오. 연후에 나는 당신과 함께 도(道)를 이야기하겠습니다.”

라고 했다.

[문항 3]

- (1) 제시문 [바]를 한국어로 요약하고, 제시문 [마]의 ‘정보적 존재자’ 개념을 바탕으로 제시문 [바]의 인간과 AI의 관계를 논하십시오. [20점]
- (2) 제시문 [마]에서 설명한 ‘피동자 중심 윤리학’의 관점을 적용하여 제시문 [사]의 ‘나그네’의 견해를 비판하십시오. [20점]

■ 예시 답안

(1)

제시문 [바]는 AI 이전 정보기술은 인간이 지시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도구였으나 현재 AI가 인간 지식에 미치는 영향은 역설적이라고 고찰한다. AI는 방대한 양의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반면 정보의 조작과 오류를 일으킬 수 있으며 개개인의 선호도에 맞춰 사용자가 원하는 반응을 제공하기에 편견을 증폭시킬 수도 있다. 즉, 인간의 통제하에 작동되더라도 AI는 인간의 정보와 현실을 왜곡한다. 앞 시대에는 기술에 의해 정보 생산과 전파가 가속화된 반면, 지금은 AI가 정보의 전파 과정에 도입되면서 인간 정보를 변질시킨다고 이 글은 본다.

제시문 [마]는 현재 세계를 정보로 이루어진 총체적 환경인 ‘인포스피어’라고 규명하고 그 안에서 인간과 기술의 관계는 주체와 객체로 이해될 수 없는 상황으로, 인간과 기술이 모두 ‘정보적 존재자’로 행위자이며 피동자이기도 한 동등하고 복합적인 관계로 보는 인식의 근본적인 전환을 요구한다. 여기서 ‘정보적 존재자,’ 즉 정보적 구조로 분석될 수 있는 모든 존재자는 정보적이라는 점에서 동등하고 그 자체로 내재적 가치를 가지며, 인격체나 생물뿐 아니라 기술이나 인공물도 포함한다. 나아가, 인포스피어에서 인간과 기술의 관계를 행위자의 관점이 아니라 피동자의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다.

위의 정보적 존재자 개념을 바탕으로 제시문 [바]의 내용을 살피면, 인간은 AI의 제작자이자 사용자, 즉 행위자인 동시에 AI가 왜곡한 정보의 수신자, 즉 피동자로 볼 수 있고, AI 역시 생산물, 즉 피동자인 동시에 정보 왜곡의 행위자가 되는 역설적인 관계를 비판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더 나아가, 제시문 [바]에서 경고하는 인간과 AI의 주체와 객체가 뒤바뀐 역설적인 관계를 제시문 [마]의 관점에서 보면, 인간과 AI 기술 모두 행위자이자 피동자로 동등해지는 새로운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2) [예시 답안 ①]

제시문 [마]에 따르면, ‘인포스피어’에 거주하는 모든 ‘존재자’는 ‘정보적’이라는 점에서 동등하다. 또한 ‘피동자’는 ‘행위자’에게 도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도덕적으로 유의미하고 중요한 존재가 될 가능성이 있다. 나아가, 모든 존재자는 ‘도덕적 피동자’로서 그 자체로 내재적 가치를 가진다. 이러한 기반 위에서 ‘피동자 중심 윤리학’에서는 행위자의 우선성을 부인하고, 피동자의 관점에서 도덕을 설명한다.

위의 관점을 제시문 [사]에 적용하면, 모든 생명체는 그 크기에 관계없이 각기 ‘숨’과 ‘기운’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없다. 따라서 ‘육중한 짐승’과 ‘미물’이라는 외면적 표지로 ‘개’와 ‘이’를 죽이는 행위를 다르게 파악하는 ‘나그네’의 견해는 부당하다. 또한 ‘개’와 ‘이’는 인간이 행하는 ‘죽임’이라는 행위의 수신자이며 대상으로 인식되고 해석되는 피동자이다. 이들은 도덕적 책임을 지지는 않지만, 자신들을 때리거나 불태워서 참혹하게 죽이는 행위자인 인간에게 도덕적 책임을 묻는 존재로서 도덕적으로 유의미하고 중요하다. 나아가, 모든 존재자는 도덕적 피동자이기에 ‘개’와 ‘이’는 단순한 객체가 아니라, 그 자체로 내재적 가치를 가지며 그 본성에 적합한 방식으로 실존하고 발전할 수 있는 권리를 지닌다. 이처럼 행위자의 우선성을 부인하는 피동자 중심 윤리학에서는 유일한 ‘도덕적 행위자’이자 내재적 가치를 전유하는 존재라고 자처해 온 인간의 위상 역시도 피동자 중심으로 재고되어야 한다. 그러한 관점을 적용하면, 제시문 [사]의 ‘나그네’는 ‘개’와 ‘이’를 죽이는 것에 대해 그 행위자인 인간의 도덕적 책임 유무에만 관심을 두고 있을 뿐, ‘개’와 ‘이’가 그 자체로 지니는 내재적 가치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측면에서 그 좁은 소견이 드러난다.

결국 ‘나그네’는 생명이라는 본질적 요소에 착안하지 않은 채 단지 외양에 따른 차별을 가하고 있다는 점, 주객으로 고착화된 인간중심적 사고에 갇혀 개별 존재자의 내재적 가치를 간과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의 견해를 비판할 수 있다.

(2) [예시 답안 ②] (내용은 같고 서술 순서만 다름)

제시문 [마]에 따르면 ‘인포스피어’에 거주하는 모든 ‘존재자’는 그 양이나 질적 가치에 관계없이 모두 ‘정보적’이라는 점에서 동등하다. 이러한 입장을 제시문 [사]에 적용하면, 모든 생명체도 그 크기나 외양에 관계없이 각기 ‘숨’과 ‘기운’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없다. 따라서 ‘육중한 짐승’과 ‘미물’이라는 외면적 표지로 ‘개’와 ‘이’를 죽이는 행위를 다르게 파악하는 ‘나그네’의 견해는 부당하다.

한편, ‘피동자 중심 윤리학’의 견지에서, ‘개’와 ‘이’는 인간이 행하는 ‘죽임’이라는 행위의 수신자이며 대상으로 인식되고 해석되는 ‘피동자’이다. 이들은 도덕적 책임을 지지는 않지만, 자신들을 때리거나 불태워서 참

혹하게 죽이는 ‘행위자’인 인간에게 도덕적 책임을 묻고 상기시키는 존재이다. 때문에 ‘도덕적 공동체’에서 배제되어 온 이들도 도덕적으로 유의미하고 중요한 존재가 될 수 있다. 이들은 도구적 가치만을 지닌 단순한 객체가 아니라, 그 자체로 내재적 가치를 가지며 그 본성에 적합한 방식으로 실존하고 발전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한다. 나아가, 행위자의 우선성을 부인하는 피동자 중심 윤리학에서 모든 존재자는 ‘도덕적 피동자’이다. 따라서 내재적 가치를 전유하며 유일한 ‘도덕적 행위자’로 자처해 온 인간의 위상 역시도 피동자 중심으로 재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을 적용하면, 제시문 [사]의 ‘나그네’는 ‘개’와 ‘이’를 죽이는 것에 대해 그 행위자인 인간의 도덕적 책임 유무에만 관심을 두고 있을 뿐, ‘개’와 ‘이’가 그 자체로 지니는 내재적 가치와 권리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부면에서 그 좁은 소견이 드러난다.

결국 ‘나그네’는 생명이라는 본질적 요소에 착안하지 않은 채 단지 외양에 따른 차별을 가하고 있다는 점, 주객으로 고착화된 인간중심적 사고에 갇혀 개별 존재자의 내재적 가치를 간과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의 견해를 비판할 수 있다.

■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3-(1)	제시문 [바]의 요약 - AI는 단순히 인간이 지시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기술이 아니며 인간 지식에 역설적인 영향을 끼침. - 방대한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하는 AI의 힘은 정보의 조작, 오류 및 현실 왜곡을 일으킬 수 있음. - AI는 인간의 욕망에 맞추도록 제작되어 인간의 통제에도 불구하고 편견을 증폭시킬 수 있음. - 즉 AI는 제작자이자 사용자인 인간에 맞추는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역설적으로 인간 지식을 변질시킨다는 경고를 던짐.	6
	제시문 [마]에 설명된 ‘정보적 존재자’의 개념에 대한 이해 - ‘인포스피어’에서 인간과 기술의 관계는 단순히 주체와 객체가 아니며 동등한 정보적 존재자임. - 정보적 존재자는 도덕적 행위의 전송자인 행위자나 행위의 수신자인 피동자로 분류됨. - 피동자는 인격체나 생물뿐 아니라 기술이나 인공물을 모두 포함함. - 정보적 구조로 분석될 수 있는 모든 존재자는 도덕적 피동자로서 그 자체로 내재적인 가치를 가짐.	4
	제시문 [마]와 제시문 [바]의 핵심 요지 연결 - 제시문 [마]에서 인간과 기술 모두 정보적 존재자로, 행위자인 동시에 피동자인 동등한 관계로 보는 관점을 확인함. - 제시문 [바]에 제시문 [마]의 ‘정보적 존재자’ 개념을 적용하면, 인간은 AI의 제작자이자 사용자인 동시에 AI가 왜곡, 변형하는 정보의 수신자, 즉 피동자이고, AI는 생산물, 즉 피동자인 동시에 정보 왜곡과 악용의 행위자로 볼 수 있음. - 더 나아가 제시문 [바]에서 경고하는 인간과 AI의 역설적인 관계를 제시문 [마]의 관점에서 보면 인간과 AI 기술 모두 행위자이자 피동자로 동등해지는 사고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음.	6
	형식의 완결성 - 구조의 완결성 - 어휘, 문장의 표현력, 단락의 구성	4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3-(2)	제시문 [마]에 설명된 ‘피동자 중심 윤리학’의 관점에 대한 이해 - ‘인포스피어’에 거주하는 모든 ‘존재자’는 ‘정보적’이기에 동등하다는 점을 서술함. - ‘피동자’는 ‘행위자’에게 도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점을 서술함. - 모든 존재자는 ‘도덕적 피동자’로서 내재적 가치를 가진다는 점을 서술함. - ‘피동자 중심 윤리학’에서는 행위자의 우선성을 부인하고 피동자의 관점에서 도덕을 설명한다는 점을 서술함.	4
	본질적 요소에 착안하지 않은 채 외양에 따른 차별을 가하고 있다는 점 비판 - 모든 생명체는 각기 혈기(血氣)를 지니고 있기에 동등하다는 점을 서술함. - ‘나그네’는 외양에 따라 ‘개’와 ‘이’를 죽이는 행위를 다르게 파악하고 있다는 점을 비판함.	4
	인간중심적 사고에 간혀 대상의 내재적 가치를 간과하고 있다는 점 비판 - ‘개’와 ‘이’는 ‘죽임’ 행위의 피동자이며 행위자인 인간에게 도덕적 책임을 묻는다는 점을 서술함. - 모든 존재자는 도덕적 피동자이기에 ‘개’와 ‘이’는 그 자체로 내재적 가치를 가진다는 점을 서술함. - ‘피동자 중심 윤리학’에서는 유일한 ‘도덕적 행위자’이자 내재적 가치를 독점하는 존재라고 자처해 온 인간의 위상 역시도 피동자 중심으로 재고된다는 점을 서술함. - ‘나그네’는 ‘개’와 ‘이’를 죽이는 것에 대해 인간의 도덕적 책임 유무에만 관심을 둘 뿐, 이들이 그 자체로 지니는 내재적 가치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비판함.	8
	형식의 완결성 - 답안 서술 구조의 완결성, 어휘 및 문장 전체의 표현력, 분량 배분	4

인문 II · 문항 1

[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공통 제시문 [가]~[마] 중 문항 1에 사용되는 제시문 [가]·[나]·[다]만 실는다. (제시문 [라]·[마]는 문항 2 참고)

[가]

사람은 처음 태어나면서부터 각기 자기 욕망과 자기 이익을 추구하였다. 천하에 공공을 이롭게 하는 일이 있어도 누구도 그것을 일으키려고 하지 않았고, 공공을 해치는 일이 있어도 누구도 그것을 제거하려고 하지 않았다. 이때 어느 한 사람이 나와서 자기 개인의 이익을 이익으로 여기지 않고 천하로 하여금 그 이익을 받게 하며, 자기 개인에게 해로운 것을 해로움으로 여기지 않고 천하로 하여금 그 해로움을 내버리게 하였다. 이 사람의 수고는 필시 천하 사람들보다 천만 배는 되었다. 천만 배의 수고를 하면서도 자기는 또한 그 이익을 누리지 않으니, 필시 천하 사람들이 기꺼이 하고자 하는 바가 아니었다. 그래서 옛날의 군주 가운데 이모 저모 생각해서 군주의 자리에 오르려고 하지 않은 자는 허유(許由)와 무광(務光)이었다. 비록 군주의 자리에 올랐으나 또한 물러난 자는 요(堯)와 순(舜)이었다. 처음에는 군주의 자리에 오르려 했으나 물러나지 못한 자는 우(禹)였다. 어찌 옛날 사람들이라고 다를 바가 있겠는가? 편안함을 좋아하고 수고로운 것을 싫어하는 것은 일반 사람들의 감정과 같다.

그러나 후대의 군주들은 그렇지 않다. 천하의 이익과 해로움의 권한이 모두 군주 자신에게서 나온다고 여기며, 천하의 이익을 전부 자기에게로 돌리고, 천하의 해로움을 전부 남에게로 돌리면서 또한 잘못이라는 생각이 없다. 천하 사람들로 하여금 감히 자기 욕망과 자기 이익을 추구하지 못하게 하면서, 자기의 매우 사사로운 것을 천하의 공적 임무라고 생각한다. (중략) 옛날에는 천하 사람이 주인이고 군주는 객이었다. 군주가 일생 동안 경영한 것은 천하를 위한 것이었다. 지금은 군주가 주인이고 천하가 객이 되었다. 무릇 천하가 안경을 얻지 못하는 것은 군주 때문이다. 군주가 천하를 얻지 못했을 때는, 천하 백성들의 간과 뇌를 상하게 하고 천하 백성들의 자녀를 이산시켜 자기 한 사람의 재산을 넓히면서도 조금도 잔인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나는 오로지 나의 자손을 위해 창업을 한 것이다.”라고 말한다. 군주가 이미 천하를 얻고 나서는, 천하 백성들의 골수를 빼내고 천하 백성들의 자녀를 이산시켜 자기 한 사람의 음란한 쾌락을 추구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며, “이것은 나의 재산에서 나온 이자이다.”라고 말한다. 그러한즉 천하의 큰 해가 되는 것은 군주뿐이다. 만약 군주가 없다면 사람들이 각자의 이로움을 취할 수 있을 것이다. 오호! 어찌 군주를 둔 도리가 본래 이와 같았겠는가!

[나]

저는 모든 군주들이 잔인하지 않고 인자하다고 생각되기를 더 원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렇지만 자비를 부적절한 방법으로 베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체차레 보르자는 잔인하다고 평가되었지만, 그는 엄격한 조치들로 로마냐 지방의 질서를 회복하였고, 그 지역을 통일하였으며, 또한 평화롭고 충성스러운 지역으로 만들었습니다. 그의 행동을 잘 생각해 보면, 잔인하다는 평판을 듣는 것을 피하려고 피스토이아가 사분오열되도록 방치한 피렌체인들과 비교할 때, 보르자가 훨씬 더 자비롭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현명한 군주는 자신의 신민들의 결속과 충성을 유지할 수 있다면, 잔인하다는 비난을 받는 것을 걱정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나친 자비로움으로 무질서를 방치해서 많은 사람이 죽거나 약탈당하게 하는 군주보다, 소수의 몇몇을 시범적으로 처벌함으로써 기강을 바로잡는 군주가 실제로는 훨씬 더 자비로운 셈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자는 공동체 전체에 해를 끼치지만, 후자는 단지 특정한 개인들만을 해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신생 국가는 위협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군주 중에서도 특히 신생 국가의 군주는 잔인하다는 평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다]

공화국은 누가 그것을 행사하건 무제한적이고 원칙이 없는 권력에, 그리고 폭군정에 대항한다. 그것이 한 사람의 지배이건 한 분파의 지배이건 또는 공동체의 이익에 반해 그들의 이익을 우위에 놓는 다수의 지배이건 관계없이 그러하다. 공화국의 이념은 군주정과의 대립 속에서 이해되고 변호된다. 그 이유는 군주정하에서 자유란 항상 한 사람의 자의에 의존하기에 좋은 주인이 악하게 될 수 있듯이 선한 군주도 악하게 될 수 있

기 때문이다. 또한 입헌군주제에서도 군주는 비록 법과 의회의 힘에 제한받지만, 태생에 의해 다른 시민들에게는 없는 특권들과 힘을 가진다. 따라서 그는 공화국이 소중히 여기는 평등이라는 근본원칙을 범하게 되는 것이다.

공화주의는 다른 기존의 정치사상들과 구분되어 왔는데, 그 이유는 공화국과 자유의 이념 때문만이 아니라 그 양자가 존속하기 위해서는 시민적 덕성이 필요하다는 이념적 주장 때문이기도 하다. 공화주의 정치 이론가들은 무수히 반복하기를, 공화국은 그들의 독립을 빼앗으려는 외부의 침략자들로부터 방어되어야 하며, 법을 좌지우지하려 하면서 자의적으로 행동하려 하고 다른 시민들을 그들의 예속자로 만들려는 군주와 귀족들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고 했다. 공동체의 자유를 위협하는 가장 큰 위험은 정치적 부패로서, 이것은 시민들로 하여금 인간, 인간사, 사물에 대해 지식을 가지고 판단할 능력을 상실하게 하고, 따라서 시민들이 덕과 악덕을 혼동하도록 만들고, 억압에 저항하고 불의에 맞서는 도덕적 힘을 빼앗아 버리며, 그들로 하여금 복종하도록 하고 아첨하게 만든다. 공화국을 외세, 폭군 그리고 부패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헌법, 법률 그리고 기타 규정만으로는 부족하고 다음과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 즉, 개인의 이익이 공공선의 일부라는 것을 시민들에게 이해시키는 특별한 형태의 지혜, 관대한 정신, 공적 삶에 참여하고자 하는 정당한 욕구, 그리고 억압자에게 저항하려는 의지가 요구된다.

[문항 1]

- (1) 제시문 [가]의 관점에서 제시문 [나]의 ‘잔인함’에 대해 평가하시오. [20점]
- (2) 제시문 [다]의 ‘공화주의’에 대한 설명을 바탕으로 제시문 [가]의 한계를 논하시오. [20점]

■ 예시 답안

(1)

제시문 [가]는 공익과 사익의 대비 속에서 올바른 군주의 모습에 관해 서술한다. 옛날의 군주가 천하의 이익이라는 공익을 위해 일했던 반면, 시대가 흘러 후대의 군주는 자기 개인과 후손의 사익만을 추구함으로써 백성의 삶이 피폐해지고 천하를 혼란에 빠졌다. 천하 백성을 상하게 하면서 자기 재산을 넓히고 쾌락을 추구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후대 군주는 천하의 큰 해가 되었고, 본래 군주를 세운 도리와의 맞지 않게 되었다.

사익만을 추구하는 군주가 결국 사회적 혼란을 초래한다는 관점에서, 제시문 [나]의 ‘잔인함’은 군주가 자신의 평판보다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내린 단호한 조치에서 발생하는 불가피한 모습이다. 단호한 대처는 특정 개인의 처형 등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잔인하다는 평판을 피할 수 없다. 그러나 인자하다는 평판을 얻기 위해 지나친 자비로움으로 일관할 경우, 공동체 전체의 피해라는 더 잔인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는 공동체의 이익보다 개인의 평판을 우선시켰다는 점에서 제시문 [가]의 후대 군주의 잔인함과 큰 차이가 없다.

이렇게 볼 때, 군주는 공동체의 안전과 이익을 위해서 개인에게는 이롭지 않은 잔인하다는 평판까지 감수해야 한다. 이처럼 제시문 [나]의 ‘잔인함’은 역설적이지만 공동체에 질서와 평화를 가져오기 위한 군주의 더 큰 자비로움인 셈이다.

(2)

제시문 [다]의 공화주의는 자유와 평등을 옹호하며, 무제한적이고 원칙 없는 권력에 반대한다. 공화주의가 다른 기존의 정치사상들과 구분되는 이유는 시민적 덕성이 필요하다는 이념적 주장 때문이다. 공화국은 독립을 위협하는 외부의 침략자들, 법을 좌지우지하며 자의적으로 행동하는 폭군, 다른 시민들을 예측시키려는 부패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공화국을 이들로부터 지켜내기 위해서는 헌법과 법률의 지배를 강화하는 한편, 개인의 이익을 지키는 지혜와 관대한 정신, 정치에의 참여 욕구와 억압자에 저항하는 의지 등의 시민적 덕성이 필수적이다.

제시문 [다]의 공화주의의 특징을 바탕으로 볼 때, 제시문 [가]는 군주정의 한계를 잘 보여준다. 우선 군주정은 군주 한 사람의 무제한적이고 자의적인 권력 행사에 기반한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자기 욕망과 자기 이익을 추구하기 마련이므로, 처음의 선한 군주도 결국 악하게 변하는 것을 막기 어렵다. 또한, 군주는 태생적으로 특권과 힘을 가져 다른 사람들의 자유와 평등을 범할 수 있다. 특히 군주의 자의적인 권력 행사와 사익 추구로 인한 정치적 부패는 사람들의 판단 능력과 억압에 저항하고 불의에 맞서는 도덕적 힘을 상실하게 한다. 그 결과 예측 관계가 강화되어 천하의 모든 사람을 군주 한 사람에게 복종하고 아첨하게 만든다.

요컨대 제시문 [다]의 공화주의가 무소불위의 절대권력과 자의적 지배를 비판하고 시민적 덕성을 강조한다면, 제시문 [가]의 군주는 사익만 추구하고 백성들을 예측시켜 스스로 판단하고 저항할 힘마저 빼앗고 있다.

■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1-(1)	군주에 대한 제시문 [가]의 관점 설명 - 제시문 [가]는 공익(천하의 이익)을 우선하는 옛날의 군주와 사익(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는 후대 군주를 대비적으로 설명 - 군주가 공익보다 사익을 우선하면 백성과 천하는 혼란에 빠짐	6
	제시문 [가]의 관점에서 제시문 [나]의 ‘잔인함’ 평가 - 제시문 [나]의 ‘잔인함’은 군주가 사익보다 공익을 우선하기 위한 단호한 조치에서 발생한 불가피한 모습 - 인자하다는 평판을 추구하는 군주는 결과적으로 공동체 전체를 위기에 빠트릴 수 있음 - 지나친 자비로움은 공동체보다 개인의 이익을 우선시켰다는 점에서 제시문 [가]의 후대 군주의 잔인함과 큰 차이가 없음 - 제시문 [나]의 ‘잔인함’은 공동체의 질서와 평화를 위한 군주의 더 큰 자비로움이라는 점에서 역설적	10
	형식의 완결성 - 답안 서술 구조의 완결성, 어휘 및 문장 전체의 표현력, 분량 배분	4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1-(2)	제시문 [다]의 공화주의에 대한 설명 - 공화주의는 자유와 평등을 옹호하며, 무제한적이고 원칙 없는 권력에 반대함 - 공화주의가 다른 정치사상과 구별되는 것은 시민적 덕성 - 공화국을 지키기 위해서는 헌법과 법률 이외에, 개인의 이익을 지키는 지혜와 관대한 정신, 정치 참여와 억압자에 저항하는 의지가 요구됨	8
	제시문 [다]의 공화주의와 대립되는 제시문 [가]의 군주정의 한계 - 군주 한 사람의 무제한적이고 자의적인 권력 행사에 기반함 - 선한 군주도 악하게 될 수 있음 - 다른 사람들의 자유와 평등을 범할 수 있음 - 정치적 부패로 사람들의 판단 능력과 도덕적 힘을 상실시켜 예측 관계를 강화함	8
	형식의 완결성 - 답안 서술 구조의 완결성, 어휘 및 문장 전체의 표현력, 분량 배분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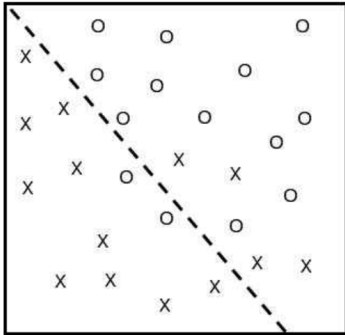
인문 II · 문항 2

※ 공통 제시문 [가]~[다]는 앞 문항(인문 II · 문항 1)을 참고하시오. 문항 2에 사용되는 제시문 [라]·[마]는 아래에 실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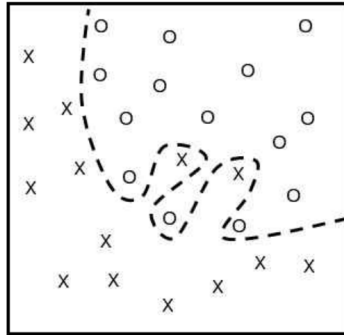
[라]

인공 지능(AI)의 하위 범주인 기계 학습은 훈련 데이터 집합을 잘 표현하는 모델을 만드는 작업이다. 기계 학습에서 모델은 현실 세계의 사물이나 사건의 본질적인 구조를 나타내는 것으로, 현실 세계의 복잡한 현상을 추상화하고 단순화하여 표현한다. 사람들은 이렇게 만들어진 모델이 뛰어난 일반화 능력을 갖고 있기를, 즉 학습에 사용되지 않은 새로운 입력 데이터에 대해 정확한 출력값을 생성하기를 기대한다. 기계 학습에서는 먼저 모델의 구조를 설정하고, 훈련 데이터를 가장 잘 표현하는 파라미터(매개 변수)와 그 값을 찾는 과정을 거친다. 모델이 보다 다양하고 복잡한 데이터의 특성을 학습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파라미터가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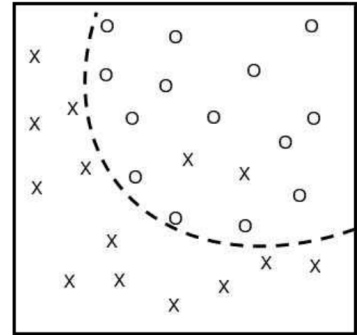
현실에서 모델이 마주하게 되는 입력 데이터는 훈련에 사용된 데이터와 항상 동일하지는 않기 때문에 일반화 능력이 매우 중요하다. 일반화 능력이 부족한 모델은 학습 데이터에는 정확한 예측을 하더라도, 처음 보는 데이터에는 부정확한 결과를 낼 수 있다. 모델의 일반화 능력은 주로 훈련 데이터의 양과 모델의 복잡도(파라미터 수) 간의 균형에 의해 결정된다. 아래 그림에서처럼 ○와 ×를 분류하는 기계 학습 모델을 예로 들어 설명하자면, <그림 1>의 점선과 같이 학습이 부족하여 훈련 데이터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지 못하면 그 경우 모델이 과소적합되었다고 한다. 과소적합된 모델로는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반면 훈련 데이터의 특성을 잘 설명하기 위해 과도하게 많은 파라미터를 학습에 사용하면 훈련 데이터에 대한 예측 결과의 오차는 감소하지만, <그림 2>에서 나타났듯 전체적인 경향성에서 벗어난 데이터까지 고려하게 되어 새로운 데이터에 대한 예측력이 떨어질 수 있다. 이런 모델은 과적합되었다고 한다. 과적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델의 복잡도를 낮추거나, 훈련 데이터의 일부를 떼어 내어 검증용으로 활용하는 기법이 자주 사용된다. 이를 통해 모델이 훈련 데이터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도록 제어하고 일반화 능력을 높일 수 있다. 그 결과, 최적화된 모델은 <그림 3>과 같이 나타난다.



<그림 1>



<그림 2>



<그림 3>

[마]

“내일 비가 올까?”처럼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긍정 또는 부정으로 답해야 하는 양자택일의 질문을 자주 경험한다. 이처럼 무엇인가를 두 가지 경우로 예측해야 하는 문제, 즉 이진 분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계 학습에서는 주로 이진 분류 통계 기법인 ‘로지스틱 회귀’를 활용한다. 예를 들어 올해 어떤 날에 비가 내릴지 내리지 않을지를 예측하려면 먼저 훈련 데이터를 이용하여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 훈련 데이터에 계절, 습도, 풍량 등 여러 정보와 ‘비 내린 날/비 내리지 않은 날’의 결과가 포함되어 있다고 할 때, 기계 학습은 이 정보를 바탕으로 강우(降雨) 여부를 예측하는 통계적 모델을 구축한다. 그 후 새로운 데이터를 모델에 입력하면 해당일의 강우 여부를 예측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이원적인 답을 도출하는 통계적 모델을 만드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기법이 로지스틱 회귀이다.

실제 분석 사례로 한국스포츠○○연구원이 한국프로야구 승패를 예측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계 학습을 활용해 2013~2023 시즌의 총 15,488개의 경기 데이터를 분석한 예를 들 수 있다. 연구팀은 경기 전 공개된 정보만을 활용하여 경기 결과를 예측하고자 선수별 성적, 상대 팀과의 격차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 총 108개 변

수를 수집하였다. 이후 기계 학습 모델에 108개 변수 전부를 적용한 경우와 일부 변수를 다양하게 조합하여 적용한 경우를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 108개의 변수 가운데 ㉠핵심적인 18개의 변수를 적용한 로지스틱 회귀 모델이 59.3%의 가장 높은 예측 정확도를 기록하며 최적의 모델로 선정되었다.

[문항 2] 제시문 [라]의 세 그림을 활용하여 제시문 [마]에서 ㉠을 최적의 모델로 선정한 과정을 설명하시오. [30점]

■ 예시 답안

제시문 [라]의 세 그림은 서로 다른 모델 간 훈련 데이터에 대한 설명력과 일반화 능력의 차이를 시각적으로 비교하여 보여주고 있다. <그림 1>은 과소적합된 모델로, 훈련 데이터를 충분히 학습하지 못해 분류 정확도가 낮고 지나치게 단순하다. 반면 <그림 2>는 훈련 데이터에 지나치게 의존한 과적합된 모델이다. 이 모델은 전체적인 경향성에서 벗어난 데이터까지 정확하게 분류하지만, 새로운 데이터에 대한 예측 정확도가 낮을 수 있다. <그림 3>은 최적화된 모델로, 훈련 데이터의 분류 정확도가 우수하고, 훈련 데이터의 주요 패턴을 잘 설명하기 때문에 새로운 데이터에도 높은 정확도를 보이는 일반화 능력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다.

제시문 [마]의 연구팀은 한국프로야구 승패 예측을 위해 여러 경기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각 경기 데이터에 대한 108개의 변수를 수집한 후, 다양한 조합의 변수를 적용하여 여러 기계 학습 모델을 구축하였다. 모델에 적용된 변수의 개수에 따라 필요한 파라미터와 그 값이 달라지며, 이는 모델의 복잡도에 영향을 준다. 18개보다 적거나 핵심적이지 않은 변수를 적용한 모델은 <그림 1>의 과소적합된 단순한 모델과 유사하게 훈련 데이터의 승패조차 정확하게 예측하지 못할 수도 있다. 반대로 모든 변수를 적용한 모델은 일부 변수를 적용한 모델보다 더 많은 파라미터가 필요하다. 이는 훈련 데이터에 비해 모델의 복잡도가 증가하여, 훈련 데이터에 대한 승패는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지만 과적합될 우려가 있다. 이러한 모델은 <그림 2>와 유사하게, 2024년이나 2025년 경기와 같은 새로운 데이터나 2013~2023 시즌 경기 데이터 중 학습에 사용되지 않고 검증용으로 사용된 데이터에 대한 예측력이 낮아질 수 있다. 연구팀은 과소적합과 과적합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델의 복잡도를 적정 수준으로 설정하고, 훈련 데이터의 일부를 떼어 내어 검증용으로 활용하여 모델의 일반화 능력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친다. 그 결과, 훈련 데이터와 새로운 데이터의 승패 예측을 가장 우수하게 하는 모델로 핵심적인 변수 18개를 포함한 로지스틱 회귀 모델이 선정되었다. 다시 말해, 연구팀은 훈련 데이터 설명력과 새로운 데이터 예측 정확도(일반화 능력)라는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는 모델을 최적의 모델로 선정하였다. 이는 제시문 [라]의 <그림 3>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최적의 모델이 과소적합과 과적합 문제 사이 균형을 이루었음을 보여준다.

■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2	제시문 [라]의 세 그림의 차이점을 설명 - 세 그림은 훈련 데이터에 대한 설명력과 일반화 능력이 다른 세 모델을 비교하여 나타냄. - <그림 1>은 과소적합된 모델로, 훈련 데이터를 충분히 학습하지 못한 모델임. - 과소적합된 모델은 분류 정확도가 낮고 지나치게 단순함. - <그림 2>는 과적합된 모델로, 훈련 데이터에 지나치게 의존한 모델임. - 과적합된 모델은 전체적인 경향성에서 벗어난 데이터까지 정확히 분류하지만, 일반화 능력이 낮을 수 있음. - <그림 3>은 최적화된 모델로 훈련 데이터의 분류 정확도가 우수함. - 최적화된 모델은 일반화 능력도 가짐.	7
	제시문 [마]의 연구 과정 요약 - 제시문 [마]에서 연구팀은 한국프로야구 승패 예측을 위해 경기 데이터를 수집함. - 연구팀은 각 경기 데이터에 대한 여러 변수를 수집함. - 다양한 조합의 변수(108개 변수 전부를 적용한 경우, 일부 변수를 다양하게 조합하여 적용한 경우)를 적용하여 여러 기계 학습 모델을 구축함.	3
	제시문 [마]에서 ㉠을 최적의 모델로 선정한 과정 설명 - 모델에 적용된 변수의 개수에 따라 모델의 파라미터가 달라지며, 이는 모델의 복잡도에 영향을 줌. - 기계 학습 모델에 18개의 변수보다 적은 변수를 적용하거나 핵심적인 변수를 제외한 변수의 조합을 적용하면, 모델의 복잡도가 낮아지며 단순하고 과소적합된 모델이 구축될 수 있음. 이 경우, <그림 1>과 유사하게 훈련 데이터의 승패 예측을 정확하게 하지 못함.	15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 기계 학습 모델에 108개의 변수를 전부 적용하면, 모델의 복잡도가 증가하며 과적합된 모델이 구축될 수 있음. 이 경우, <그림 2>와 유사하게 훈련 데이터에 대한 승패 예측은 정확하지만, 일반화 능력이 낮을 수 있음. - 수집되지 않은 데이터나 검증용으로 사용된 데이터에 대한 예측력이 낮다는 것으로 과적합된 모델의 일반화 능력을 설명함. - 로지스틱 회귀 모델에 핵심적인 18개의 변수를 적용한 모델이 최적의 모델로 선정됨. 이 모델은 모델의 과적합과 과소적합의 문제를 해결한 최적화된 모델로 <그림 3>과 유사하게 훈련 데이터에 대한 설명력과 일반화 능력이 모두 우수함.	
	형식의 완결성 - 답안 서술 구조의 완결성, 어휘 및 문장 전체의 표현력, 분량 배분	5

인문 II · 문항 3

[문항 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30점]

[I]

시장에서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기 위해서는 거래 당사자 간에 정보가 충분히 공유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원하는 상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거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거래 당사자들이 보유한 정보의 양과 질이 서로 달라 정보의 비대칭이 발생한다. 예를 들어, 중고차 시장에서는 판매자만 실제 품질을 알고 있고, 소비자는 그 정보를 알 수 없는 정보 비대칭이 존재한다. 시장에는 다양한 품질의 차량이 존재하는데, 판매자는 자신이 파는 차의 품질에 비례하여 가격을 받으려 하고, 소비자는 품질을 모르기 때문에 시장의 평균 가격에 차량을 구매하려고 한다. 이 상황에서는 양질의 중고차는 판매되지 않고 낮은 품질의 중고차만 판매된다. 이처럼 상대적으로 낮은 품질의 상품을 구매하게 되는 상황을 역선택이라고 한다.

[II]

대출자가 차입자에게 자금을 빌려줄 때, 차입자는 빌린 원금에 대한 대가로 이자를 지급한다. 이때 원금 대비 이자의 비율을 ‘이자율’이라 하며, 일반적으로 백분율(%)로 표현한다. 예를 들어, 은행이 기업에 100만 원을 대출해 주고 1년 후 3만 원의 이자를 받는다면, 이 경우의 이자율은 $\frac{30,000}{1,000,000} \times 100\% = 3\%$ 가 된다. 이처럼 은행이 기업에 자금을 대출할 때 기업이 지급하기로 계약상 약속한 이자율을 ‘약정 이자율’이라고 한다. 그러나 차입자가 채무를 불이행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은행이 실제로 기대할 수 있는 이자율은 약정 이자율과 다를 수 있다. ‘기대 이자율’은 미래에 발생 가능한 여러 상황에서의 이자율에 각 상황의 발생 확률을 곱한 뒤 이를 모두 합산하여 계산한 값이다. 예를 들어, 은행이 기업에 약정 이자율 10%로 대출했다고 하자. 기업이 부도 나지 않을 확률은 0.95이고, 이 경우 기업은 약정 이자를 모두 상환할 수 있다. 반면, 부도가 발생할 확률은 0.05이며, 이 경우 기업은 원금조차 상환하지 못한다. 이때 기대 이자율은 $10\% \times 0.95 + (-100\%) \times 0.05 = 4.5\%$ 가 된다.

대출 시장에 두 종류의 차입자가 있다고 하자. 우량기업의 부도 발생 확률은 $\frac{1}{6}$, 불량기업의 부도 발생 확률은 $\frac{1}{3}$ 이다. 부도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기업은 약정 이자를 모두 상환하지만, 부도가 발생하면 원금조차 상환하지 못한다. 대출 시장에서 우량기업의 비중은 80%, 불량기업의 비중은 20%이다. 은행이 대출을 결정할 때 기대하는 이자율은 10%이다.

- (1) 은행이 각 기업의 부도 위험을 정확히 알고 있을 때 우량기업과 불량기업에 적용해야 할 약정 이자율을 각각 계산하시오. [10점]
- (2) 은행이 대출 시장의 구성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만 각 기업의 부도 위험을 알지 못할 때 모든 기업에 적용해야 하는 약정 이자율을 계산하시오. [12점]
- (3) 문항 (1)과 (2)에서 계산한 약정 이자율을 활용하여, 대출 시장에 기업의 부도 위험에 관한 정보의 비대칭이 존재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설명하시오. [8점]

■ 예시 답안

문항 3-(1)

우량기업의 부도 시와 상환 시의 확률과 이자율은 다음과 같다.

확률·이자율	부도 시	상환 시
확률	$\frac{1}{6}$	$\frac{5}{6}$
이자율	-100%	$I_{\text{우량}}$

우량기업의 기대 이자율을 10%로 만드는 약정 이자율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frac{1}{6} \times (-100\%) + \frac{5}{6} \times I_{\text{우량}} = 10\%$$

$$\Rightarrow \frac{5}{6} \times I_{\text{우량}} = 10\% + \frac{100}{6}\%$$

$$\Rightarrow 5 \times I_{\text{우량}} = 160\%$$

$$\therefore I_{\text{우량}} = 32\%$$

불량기업의 부도 시와 상환 시의 확률과 이자율은 다음과 같다.

확률·이자율	부도 시	상환 시
확률	$\frac{1}{3}$	$\frac{2}{3}$
이자율	-100%	$I_{\text{불량}}$

불량기업의 기대 이자율을 10%로 만드는 약정 이자율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frac{1}{3} \times (-100\%) + \frac{2}{3} \times I_{\text{불량}} = 10\%$$

$$\Rightarrow \frac{2}{3} \times I_{\text{불량}} = 10\% + \frac{100}{3}\%$$

$$\Rightarrow 2 \times I_{\text{불량}} = 130\%$$

$$\therefore I_{\text{불량}} = 65\%$$

문항 3-(2)

정보의 비대칭이 존재할 때, 우량기업과 불량기업의 부도 시와 상환 시의 확률과 이자율은 다음과 같다.

	비중	확률·이자율	부도 시	상환 시
우량기업	80%	확률	$\frac{1}{6}$	$\frac{5}{6}$
		이자율	-100%	$I_{\text{기업}}$
불량기업	20%	확률	$\frac{1}{3}$	$\frac{2}{3}$
		이자율	-100%	$I_{\text{기업}}$

$$0.8 \times \left(\frac{1}{6} \times (-100\%) + \frac{5}{6} \times I_{\text{기업}} \right) + 0.2 \times \left(\frac{1}{3} \times (-100\%) + \frac{2}{3} \times I_{\text{기업}} \right) = 10\%$$

$$\Rightarrow \left(0.8 \times \frac{5}{6} + 0.2 \times \frac{2}{3} \right) \times I_{\text{기업}} = 10\% - 0.8 \times \frac{1}{6} \times (-100\%) - 0.2 \times \frac{1}{3} \times (-100\%)$$

$$\Rightarrow 4.8 \times I_{\text{기업}} = 180\%$$

$$\therefore I_{\text{기업}} = 37.5\%$$

다음과 같이 계산하면 4점 처리한다.

$$0.8 \times 32\% + 0.2 \times 65\% = 38.6\%$$

문항 3-(3)

기업의 부도 위험에 관한 정보의 비대칭이 존재하면 은행은 37.5%의 이자율을 제시한다. 32%의 이자율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우량기업은 은행이 제시한 이자율이 그보다 높기 때문에 대출을 받으려 하지 않고, 65%의 이자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불량기업은 은행이 제시한 이자율이 그보다 낮기 때문에 대출을 받으려고 한다. 이 상황에서는 우량기업은 대출을 받지 않고 불량기업만 대출을 받게 된다. 이처럼 대출 시장에 정보의 비대칭이 존재하면 은행이 상대적으로 위험이 높은 기업에게만 대출을 하게 되는 역선택의 문제가 발생한다.

■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3-(1)	- 우량기업의 약정 이자율을 구하는 식을 정확하게 제시 (3점) - 우량기업의 약정 이자율을 계산하여 정답 제시 (2점) - 불량기업의 약정 이자율을 구하는 식을 정확하게 제시 (3점) - 불량기업의 약정 이자율을 계산하여 정답 제시 (2점)	10점
3-(2)	- 우량기업과 불량기업에 대한 기대 이자율 식을 정확하게 적용 (4점) - 우량기업과 불량기업의 비중을 가중치로 적용 (4점) - 모든 기업에 적용할 약정 이자율을 계산하여 정답 제시 (4점)	12점
3-(3)	- 문항 (1)과 (2)의 이자율을 활용해서 우량기업과 불량기업의 반응을 설명 (4점) - 대출 시장에 불량기업만 남는다는 역선택 문제 설명 (4점)	8점

2025학년도 인문계열 I · II

인문 I · 문항 1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어떤 부모는 자기 아이들에게 “나도 역시 어렸을 때는 너와 같은 고통을 겪었다. 그리고 나는 그 곤경을 타개해 왔다. 너희들도 또한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말한다. 또는 이렇게 말할지도 모른다. “나는 불행한 어린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모두 용서되어야만 한다.” 위의 두 사람의 말에서 그들이 자신의 행동이나 과거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쉽게 알아차릴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자신의 해석을 변경하지 않는 한, 그들의 행동이 바뀌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어떤 경험이란 그것 자체가 성공의 원인도 실패의 원인도 될 수 없다. 우리는 자신들의 충격적인 경험, 이른바 외상(外傷)으로 고통스러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경험으로부터 꼭 자신의 목적에 합치되는 것이라면 어떤 것이든 만들어 낸다. 우리는 경험에 의해 결정되는 존재가 아니며, 경험에 부여하는 의미는 우리가 결정한다. 우리는 과거에 겪은 일에 휘둘리는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설정한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존재이다.

[나]

The self is defined in important respects through one's relationships with others. That is, the self is linked in memory with other individuals whom we view as significant in our lives. We have strong links between our self-concept and our representations of parents, siblings, children, or good friends. Not all aspects of the self will be consistently represented in these self-other associations. For example, there might be a strong emphasis on pursuing enjoyable activities in my link with my best friend, but my link with my parents might focus on our shared heritage or our duties to one another. These differing associations will serve to activate different aspects of an individual's self-concept. Moreover, these significant persons need not be physically present to influence the activated self-concept. Instead, one needs only to think about or be reminded of a significant other to activate the subset of beliefs about the self that are relevant to one's experiences in that relationship. Thus, the varieties of relationships we have with other people can also contribute to dynamic variability in the nature of the self-structure that is accessible at the moment.

[문항 1] 제시문 [나]를 한국어로 요약하고, 제시문 [가]와 제시문 [나]의 ‘자아에 대한 이해’를 대비하십시오. [30점]

■ 예시 답안

제시문 [나]는 자아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 정의되고 변화한다고 설명한다. 자아는 기억 속에서 중요한 인물들과 연결되며, 이런 기억의 연결 고리가 자아 개념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 사람에 따라 강조되어 기억되는 부분이 다르므로, 각 관계는 자아의 서로 다른 부분을 활성화한다. 물리적으로 타인이 옆에 존재하지 않아도, 그들과의 기억만으로도 자아는 활성화될 수 있으며; 사람에 따라 자아의 다른 부분들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자아는 동적으로 변화하는 특성을 보인다.

제시문 [가]는 개인이 자기 경험을 해석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방식이 자아를 결정한다고 본다. 충격적인 경험을 했더라도 그 경험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자아가 다르게 정의된다고 본다. 따라서 경험 자체가 성공이나 실패의 원인은 아니며 경험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지가 중요하다고 설명한다. 결국 인간은 과거 경험에 좌우되는 존재가 아니라 자기 목표에 합치되는 의미를 경험에 부여하면서 스스로 자기의 인생을 정의해나가는 존재라고 주장한다.

요약하면, 제시문 [나]는 자아가 타인과의 관계와 그 경험에 영향을 받아 형성된다고 보는 반면에, 제시문 [가]는 자아가 경험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경험에 스스로 부여하는 의미와 해석으로 결정된다고 본다. 따라서 제시문 [나]의 관점에서 자아 형성은 타인의 영향을 받는 수동적인 과정이라면 제시문 [가]에서의 자아 형성은 자기 스스로 정의해 나가는 능동적인 과정이다.

■ 채점 기준

채점 기준	배점
1) 제시문 [나]의 요약 - 자아가 타인과의 관계에 의해 정의됨 - 사람에 따라 기억에 차이가 나기 때문에 다양한 자아의 측면이 활성화됨 - 자아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물리적으로 존재하지 않아도 기억만으로도 자아의 다양한 측면이 활성화될 수 있음 - 자아는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동적으로 계속 변화됨	8
2) 제시문 [가] 요지 파악 - 과거 경험이 아니라 경험에 대한 해석이 자아를 결정함 - 경험 그 자체가 성공이나 실패의 원인이 될 수 없음 - 인간은 경험에 의해 결정되는 존재가 아니라 자기 목표에 합치되도록 경험을 해석하고 의미 부여를 하면서 자아를 결정해 나가는 존재임	7
3) 제시문 [가]와 제시문 [나] 핵심 요지 대비 - 제시문 [가]에서는 경험이 아니라 경험에 대한 스스로의 해석과 의미 부여가 자아를 결정한다고 주장함 - 제시문 [나]에서는 타인과의 관계와 경험이 자아를 정의한다고 주장함	10
4) 형식의 완결성 - 구조의 완결성 - 어휘, 문장의 표현력, 단락의 구성	5

인문 I · 문항 2

[다]

데페이즈망은 우리말로 흔히 ‘전치(轉置)’로 번역된다. 이는 특정한 대상을 상식의 맥락에서 떼어 내 전혀 다른 상황에 배치함으로써 기이하고 낯선 장면을 연출하는 것을 말한다. 초현실주의 문학의 선구자 로트레아몽의 시에 “재봉틀과 양산이 해부대에서 만나듯이 아름다운”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바로 이것이 전형적인 데페이즈망의 표현법이다. 해부대 위에 재봉틀과 양산이 놓여 있다는 게 통념에 맞지 않지만, 바로 그 기이함이 시적·예술적 상상을 낳아 논리와 합리 너머의 세계에 대한 심층의 인식을 일깨운다.

르네 마그리트의 「골콘다」를 통해 데페이즈망의 맛을 깊이 음미해 보자. 「골콘다」는 푸른 하늘과 집들을 배경으로 검은 옷을 입고 검은 모자를 쓴 남자들이 공중에 떠다니는 모습을 그린 작품이다. 보기에 따라서는 남자들이 비처럼 하늘에서 쏟아지는 느낌을 주기도 한다. 어느 쪽이든 간에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일단 화가는 이 그림에서 중력을 제거해 버렸다. 거리를 걷고 있어야 할 사람들이 공중에 떠 있다. 그리고 그들은 자로 잰 듯 일정한 간격으로 포진해 있다. 기계적인 배치이다. 빗방울이 떨어져도 이렇듯 기하학적으로 떨어질 수는 없다. 이처럼 현실의 법칙을 벗어나 있지만, 그 비상식의 조합이 볼수록 매력이 있다. 기이하고 낯선 느낌이 보는 이에게 추리의 욕구와 신비로운 환상을 불러일으킨다. 이는 우리의 마음이 동했다는 뜻이고, 우리의 마음을 움직인 이상 이 허구의 이미지는 세상을 움직이는 하나의 힘이 되어 버린다.

데페이즈망은 우리로 하여금 현실로부터 쉽게 이탈해 무한한 자유와 상상의 공간으로 넘어가게 한다. 그런 점에서 데페이즈망은 현실에 대한 일종의 파괴라고 할 수 있다. 현실의 법칙과 논리를 간단히 무장 해제해 버리는 파괴의 형식이다. 이와 관련해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 데페이즈망 형식의 다양성이다. 파괴라는 말은 그 말의 강한 인상 때문에 다양성과는 거리가 멀다는 인상을 준다. 하지만 창조의 형식만큼 파괴의 형식도 다양하다. 흔히 창조적 파괴라는 말을 한다. 이때 파괴는 단순히 창조를 위한 전제에 불과한 것이 아니다. 파괴의 형식이 창조의 형식을 규정하고, 파괴의 결이 창조의 결로 이어진다. 한마디로 파괴는 무차별적인 그 무엇이 아니며, 창조가 파괴로부터 명확하게 구분이 되는 것도 아니다. 파괴되는 순간, 창조의 방향은 이미 결정이 나 있다고 할 수 있다.

[라]

“우리는 이 아파트에 거의 삼 년 동안 살아왔지만 당신 같은 사람은 본 적이 없소.”

“아니 뭐라고요?” 그는 튀어오를 듯한 분노 속에서 신음 소리를 발했다.

“당신이 나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해서 그래 이 집주인을 당신 멋대로 도둑놈이나 강도로 취급한다는 말입니까? 나두 이 집에서 삼 년을 살아왔소. 그런데도 당신 얼굴은 오늘 처음 보오. 그렇다면 당신도 마땅히 의심받아야 할 사람이 아니겠소?” 그는 화가 나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어쨌든.” 사내는 집요하게 물고늘어졌다.

“당신을 의심하는 것은 안됐지만 우리 입장도 생각해 주시오.”

“그건 나도 마찬가지로.”

그는 화가 나서 투덜거리면서 열쇠 구멍에 열쇠를 들이밀었다. 문은 소리없이 열렸다.

“정 못 믿겠으면 따라 들어오시오. 증거를 뵈 주겠소.” 그는 안으로 들어섰다. 집 안은 컴컴하였다.

“여보!”

그는 구두를 벗고, 스위치를 찾으려고 벽을 더듬거리면서 분노에 차서 소리를 질렀다. 하지만 집 안은 어두웠고 아무도 대답하질 않았다. (중략)

그는 벌거벗은 채 온 방 안을 서성거리기 시작했다. 그는 그것이 일상사인 것처럼 걷고, 그리고 뛰었다. 그는 부엌을 답사하였고 그럴 때엔 욕실 쪽이 의심스러웠다. 욕실 쪽을 보고 있노라면 그는 거실 쪽이 의심스러웠다. 그는 활차처럼 뛰고 또 뛰었다. 그러나 그는 아무것도 아무런 낱새도 발견해 낼 수 없었다. 무생물에 놀란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그는 생각했다. 그러자 그는 비로소 안심이 되었다. 그래서 거만스럽게 걸어가서 스위치를 내렸다. 그는 소파에 앉아 남은 설탕물을 찹금찹금 들이켜기 시작했다. 그가 스위치를 내리자, 벽에 도료처럼 붙었던 어둠이 차곡차곡 잠겨서 덩어리고 그들은 이윽고 조심스럽게 수군거리더니 마

침내 배짱 좋게 깔깔거리고 있었다. 말리운 휴지 조각이 베포처럼 늘어져 허공을 난다. 닫힌 서랍 속에서 내 의가 펄펄 뛰고 있다. 책상을 받친 네 개의 다리가 흔들거리기 시작한다. 찬장 속에서 그릇들이 어깨를 이고 달그럭거리며 쟁그렁거리면서 모반을 시작한다.

그것은 그래도 처음엔 조심스럽게 시작되었다. 하지만 그들의 대상이 무방비인 것을 알자, 일제히 한꺼번에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날뛰기 시작했다. 크레용들이 허공을 난다. 옷장 속의 옷들이 펄럭이면서 춤을 춘다. 벽대가 물뱀처럼 꿈틀거린다. 용감한 녀석들은 감히 다가와 그의 얼굴을 슬쩍슬쩍 건드려 보기도 하였다. 조심해, 조심해. 성냥갑 속에서 성냥개비가 중얼거린다. 꽃병에 꽂힌 마른 꽃송이가 다리를 번쩍번쩍 들어 올리면서 춤을 춘다. 내의가 들여다보인다. 벽이 서서히 다가와서 눈을 두어 번 꿈쩍거리다가는 천천히 물러서곤 하였다. 트랜지스터가 안테나를 세우고 도립하기 시작한다. 그러자 재떨이가 박수를 치기 시작한다. 소켓 부분에선 노래가 흘러나온다. 낙숫물이 신기해서 신을 받쳐 들던 어릴 때의 기억처럼 그는 자그마한 우산을 펴고 화환처럼 황홀한 그의 우주 속으로 뛰어든 셈이었다. 그는 공범자가 되고 싶은 욕망을 느낀다.

그때였다. 그는 서서히 다리 부분이 경직해 오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우연히 느낀 것이었다. 처음에 그는 이 방에서 도망가리라 생각했었기 때문에, 될 수 있는 한 소리를 내지 않고 살금살금 움직이리라고 마음먹고 천천히 몸을 움직이려 했을 때였다. 그러나 그는 다리를 움직일 수가 없었다. 이상한 일이었다. 그래서 그는 손을 내려 다리를 만져 보았는데 다리는 이미 굳어 석고처럼 딱딱하고 감촉이 없었으므로 별수 없이 손에 힘을 주어 기어서라도 스위치 있는 쪽으로 가리라고 결심했다. 그는 손을 뻗쳐 무거워진 다리, 그리고 더욱더 굳어져 오는 다리를 끌고 스위치 있는 곳까지 가려고 안간힘을 썼다. 그러나 그는 채 못 미쳐 이미 온몸이 굳어 오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래서 그는 숫제 체념해 버렸다. 참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는 조용히 다리를 모으고 직립하였다.

[문항 2] 제시문 [다]의 관점으로, 제시문 [라]에서 ‘그’가 처한 상황과 심리 상태를 비현실적으로 형상화한 의의에 대해 논하시오. [30점]

■ 예시 답안

제시문 [다]는 특정한 대상을 우리의 상식과 전혀 다른 상황에 배치함으로써 기이하고 낯선 장면을 연출하는 ‘데페이즈망’을 로트레아몽의 시와 마그리트의 「골콘다」를 예로 들어 설명하고 있다. 데페이즈망은 비현실적 기이함이 만들어내는 시적·예술적 상상을 통해 논리와 합리의 세계 너머에 대한 심층의 인식을 일깨우고, 무한한 자유와 상상의 공간으로 나아가게 만들면서, 현실에 대한 일종의 파괴를 통해 다양한 창조를 가능하게 하는 창조적 파괴의 성격을 띤다.

제시문 [라]의 ‘그’는 삼 년 동안 살아온 아파트 주민들과 단절되어 있으며, 집에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분노와 외로움을 느낀다. 방 안에 들어가 스위치를 내리자, 방 안에 휴지 조각, 내의, 책상 다리, 그릇, 크레용, 혁대 등 ‘무생물’들이 일제히 소리 지르고 날뛰며 살아 움직이는 비현실적인 상황이 펼쳐진다. 그는 처음에는 놀라고 두려워하지만, 그 방 안에서 무생물들과 공범자가 되는 ‘황홀한 우주’를 느낀다. 그러나 그가 소리 내지 않고 방 안을 벗어나려 하자 서서히 다리와 손, 온몸이 굳어 버려 체념하고 만다.

이렇게 등장인물의 상황과 심리를 비현실적 장면(데페이즈망)으로 형상화함으로써, 주변 사람과 일상 공간으로부터 고립된 도시인의 소외(고독, 관계 단절 등)를 보다 기이하고 낯선 세계로 강렬하게 경험하도록 만들면서 창조적 파괴의 의의를 잘 보여주고 있다.

■ 채점 기준

채점 기준	배점
제시문 [다]에 나타난 데페이즈망 개념과 내용 정리 - 데페이즈망 개념을 기이하고 낯선 비현실적인 상황 등으로 설명 - 데페이즈망은 현실로부터 이탈해 자유와 상상의 공간으로 나아가는 “창조적 파괴”임을 요약	10점
제시문 [라]에 나타난 데페이즈망 상황과 작품 내용 이해 - 사물들이 살아있는 비현실적인 상황(“닫힌 서랍 속에서 내의가 펄펄 뛰”고, “크레용들이 허공을 날”고, “꽃병에 꽂힌 마른 꽃송이가 다리를 들어올리면서 춤을 추”고, “온몸이 마비되”는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 소통단절의 현실을 파괴하고 사물들이 살아 움직이는 “화환처럼 황홀한 우주를 창조”하는 내용을 설명하며 “창조적 파괴”를 강조 - 이러한 내용을 통해, 그(도시인)의 소통 단절(고독, 소외 등)을 효과적으로 전달한다는 내용 강조	15점
형식의 완결성 - 답안 서술 구조의 완결성, 어휘 및 문장 전체의 표현력, 분량 배분	5점

인문 I · 문항 3

[마]

소비자들은 일상생활에서 수많은 형태의 광고물을 접하며 살고 있다. 그러나 동일한 광고물을 접하면서도 서로 똑같이 지각하지는 않는다. 지각이란 ‘우리가 주위의 세계를 보는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두 사람이 똑같은 조건하에서 같은 자극에 노출된다 하더라도 그들이 그것을 어떻게 선택하고 조직하고 인식하고 해석하느냐 하는 것은 각자의 필요와 가치, 기대에 따라 다르다. 그러므로 지각은 ‘개인이 자극을 의미 있고 일관된 세계의 상으로 선택·조직·인식·해석하는 과정’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감각은 상품의 광고나 포장, 상표명 등과 같이 단순한 자극에 대한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감각 기관의 반응이다. 감각은 오감을 통해 외부의 자극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반면에 지각은 감각 기관을 통해 들어온 자극을 개인이 의미 있는 것으로 조직하는 과정이다. 따라서 어떤 자극물이 지각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먼저 그것이 감각 기관을 통해 우리의 정신적 경계 속에 들어오지 않으면 안 된다. 지각을 통해 개인에게 편견이 형성되기도 하는데 이러한 지각의 심리적 편견은 감각을 지배한다. 즉, 심리적 편견이 있을 경우 감각하는 과정에서 왜곡이 발생한다.

[바]

강물을 건널 적에 사람들이 모두 고개를 쳐들고 하늘을 보기에, 나는 그 사람들이 고개를 쳐들고 하늘을 향해 속으로 기도를 드리나 보다 하였다. 그런데 한참 있다가 안 사실이지만, 강을 건너는 사람이 물을 살펴보면 물이 소용돌이치고 용솟음치니, 몸은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듯하고 눈길은 물살을 따라 흘러가는 듯하여, 곧 어지럼증이 나서 물에 빠지게 된다. 그러니 저 사람들이 고개를 쳐든 것은 하늘에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요, 물을 외면하고 보지 않으려는 것일 뿐이었다. (중략) 이와 같이 위태로운데도, 강물 소리를 듣지 못하였다. “요동 벌판이 평평하고 드넓기 때문에 강물이 거세게 소리를 내지 않는 것이다.”라고 모두들 말하였다. 그러나 이는 강에 대해 잘 모르고 한 말이다. 요하(遼河)가 소리를 내지 않은 적이 없건만, 단지 밤중에 건너지 않아서 그랬을 뿐이다. 낮에는 물을 살펴볼 수 있는 까닭에 눈이 오로지 위태로운 데로 쏠리어, 한창 벌벌 떨면서 두 눈이 있음을 도리어 우환으로 여기는 터에, 또 어디서 소리가 들렸겠는가? 그런데 지금 나는 밤중에 강을 건너기에 눈으로 위태로움을 살펴볼지 못하니, 위태로움이 오로지 듣는 데로 쏠리어 귀로 인해 한창 벌벌 떨면서 걱정을 금할 수 없었다. (중략)

소리와 빛같은 나의 외부에 있는 사물이다. 이러한 외부의 사물이 항상 귀와 눈에 누를 끼쳐서, 사람이 올바르게 보고 듣는 것을 이와 같이 그르치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하물며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강을 건너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할 뿐만 아니라, 보고 듣는 것이 수시로 병폐가 됨에라! 나는 장차 나의 산중으로 돌아가 대문 앞 계곡의 물소리를 다시 들으며 이와 같은 깨달음을 검증하고, 아울러 처신에 능란하여 제 귀와 눈의 총명함만 믿는 사람들에게도 경고하련다.

[사]

일반적으로 실재론의 입장에서는 감각을 통한 지각의 여부와 상관없이 대상이 독립적으로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우리는 감각의 한도 내에서만 외부 세계의 대상을 지각할 수 있을 뿐, 대상의 실재를 있는 그대로 파악할 수 없다. 이러한 점에서 조지 버클리는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있는 그대로의 대상이 아니라, 감각 기관의 지각을 통해 마음속에서 형성되는 관념뿐이라고 보았다. 어둠 속에서 코끼리의 코를 만지고 갖게 된 관념만으로 코끼리의 전체 모습을 알 수 없는 것처럼, 그는 우리의 제한된 감각 경험으로부터 형성된 관념 중 어떤 것이 대상의 실재와 일치하는지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았다. (중략)

실재론에 비판적인 버클리의 입장에서 외부 세계의 대상들은 우리 마음과 따로 떨어져 존재할 수 없는 것으로, 단지 우리 마음속 ‘관념들의 집합’일 뿐이다. 그는 ‘존재하는 것’이란 곧 ‘지각되는 것’이며, ‘지각되지 않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고 보고, 대상을 지각하는 우리 마음과 상관없이 대상이 독립적으로 존재한다고 보는 상식적 실재론자들의 입장을 비판했다. 버클리는 지각의 조건 또는 지각하는 주체의 유무와 무관하게 대상이 실재한다고 생각하는 입장을 부정하고자 한 것이다.

그의 주장처럼 외부 세계의 대상이 관념의 묶음에 불과하다면 우리가 접하는 대상들이 환각일 수 있지는 않을까? 이에 대해 버클리도 지적된 어떤 것이 환각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결정하는 것은 감각 경험들이 반복되는 유형인 족(族)을 이루는지 관찰함으로써 가능하다고 보았다. 가령 ‘나무’는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반복되는 감각 경험들의 한 유형을 지닌다. 우리는 나무를 보는 각도나 거리에 따라 그 형태나 크기를 달리 지각할 수 있으나, 나무에 대한 시각적 경험과 촉각적 경험은 일련의 체계성을 갖는다. 나무에 대한 우리의 감각 경험들은 규칙적이고 체계적인 방식으로 서로 관련되어 있으며, 감각 경험의 조건이 달라진다고 하더라도 변화의 폭은 크지 않다. 이에 반해 감각 경험이 질서 있게 연속되지 못한다는 점에서 환각은 감각 경험들이 족을 이루지 못한다. 이렇게 본다면 대상의 존재가 입증되기 위해 중요한 것은 감각 경험과 대상과의 관계가 아니라 감각 경험들 간의 관계인 것이다.

[문항 3]

- (1) 감각이 왜곡되는 현상에 대한 제시문 [마]와 제시문 [바]의 이해를 대비하시오. [20점]
- (2) 제시문 [바]와 제시문 [사]에서 말하는 ‘대상의 실재(實在)’에 대한 견해의 차이를 설명하시오. [20점]

■ 예시 답안

문항 3-(1)

제시문 [마]는 소비자들이 동일한 광고물을 접하고서도 똑같이 지각하지 않는 현상의 원인을 설명하고 있다. 이 글에 따르면 인간의 감각은 오감을 통해 외부의 자극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만, 이 자극을 각 개인이 의미 있는 것으로 조직하는 과정인 지각을 통해 개인에게 심리적 편견이 형성되면서, 그 편견으로 인해 감각하는 과정에서의 왜곡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한편 제시문 [바]의 글쓴이는 낮에 강을 건널 때 시각 자극에 압도당하여 강물의 소리를 듣지 못하였다가 밤에 시각 자극이 사라지자 그때야 비로소 벌벌 떨면서 강물의 소리를 들었던 경험, 그리고 그 과정에서 깨달은 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이 글에 따르면 인간은 외부의 사물을 있는 그대로 지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 까닭은 외부의 사물들이 주는 여러 자극들 가운데 특정 자극에 대해 우리의 감각이 과도하게 활성화할 경우, 다른 감각을 통해 자극을 받아들이는 것을 방해하거나 다른 감각을 무디게 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자극으로 인해 놀람이나 공포 같은 감정 상태에 빠질 경우, 이 감정으로 인해 여러 감각이 동시에 작용하는 것을 충분히 지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한다. 그런 까닭에 이 글은 인간의 감각을 지나치게 신뢰하는 것은 병폐가 될 수 있음을 경계하고 있다.

이를 통해 볼 때, 제시문 [마]와 [바]는 감각이 왜곡되는 현상에 대한 이해의 면에서 차이를 보인다. 제시문 [마]에서는 지각을 통해 형성되어 온 각 개인의 심리적 편견에 의해 감각하는 과정에서 왜곡이 발생하는 반면, 제시문 [바]에서는 동시에 여러 자극이 주어질 때 우리의 감각이 선택적으로 작용하는 한계나, 여러 감각을 통해 전달되는 자극들을 감정으로 인해 동시에 지각하지 못하는 감각-지각 체계의 불완전함 때문에 감각하는 과정의 왜곡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다.

문항 3-(2)

제시문 [바]에서 ‘나’는 대상의 ‘실재’를 명확히 전제하였다. 강물 소리를 듣지 못하였더라도 ‘요하’는 늘 소리를 내고 있다는 것이나 ‘소리와 빛깔’이 나의 외부에 있다고 언급한 대목에서 이 점이 드러난다. 때문에 ‘나’는 이처럼 실재하는 대상의 본질을 파악할 수 있고 또한 파악해 내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였다. 다만, 낮에는 시각이, 밤에는 청각이 강의 위태로움을 감지하는 데 결정적 영향을 끼치듯이, 실재가 감각되는 양상은 매우 불완전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조건이 달라지면 대상이 감각되는 내역과 수위도 크게 달라져서 대상을 그릇된 면모로 파악하게 된다는 것이다.

한편, 제시문 [사]에서 버클리는 대상이 독립적으로 실재한다고 생각하는 실재론자들의 관점을 비판하였다. 우리는 감각 기관의 지각을 통해 형성된 관념만으로 대상을 파악하기에, 관념과 실재의 일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당초에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극단적으로는 ‘지각되지 않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에 따라 버클리는 독립적 실재 자체에 천착하지 않고 ‘지각된 것’이 환각인지 아닌지를 판별하는 문제에 유의하였다. 그는 감각 경험의 조건이 달라져도 그 변화의 폭은 크지 않으므로, 대상에 대한 감각 경험들이 일련의 체계성을 갖는지 여부를 관찰해야 한다고 보았다.

결국, 제시문 [바]에서는 감각을 통한 지각의 여부와 무관하게 대상은 언제나 외부에 실재하므로 대상이 지닌 본연적 성질을 탐구하되, 조건에 따라 편차가 큰 감각에 대한 과신을 경계할 것을 주장하였다. 반면, 제시문 [사]에서는 독립된 실재를 부인하였으며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것은 관념뿐이라고 하였다. 또한 감각 경험이 조건의 변화에도 질서 있는 연속을 이루게 되므로 감각 경험과 대상 간의 관계가 아니라 감각 경험들 간의 관계에 주목해야 한다는 견해를 표출하였다.

■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3-(1)	감각이 왜곡되는 현상에 대한 제시문 [마]의 이해 - 외부의 자극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감각’, 감각을 통한 자극을 각 개인이 의미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지각’의 의미를 정확히 서술함 - ‘심리적 편견’으로 인해 왜곡이 발생한다는 내용을 정확히 서술함	4점
	감각이 왜곡되는 현상에 대한 제시문 [바]의 이해 - 낮에는 눈으로, 밤에는 귀로 강물이라는 대상을 감각하게 되었던 이유를 서술함 - 감각을 지나치게 신뢰하는 것은 병폐가 될 수 있음을 서술함	6점
	제시문 [마]와 제시문 [바]의 감각이 왜곡되는 현상에 대한 이해의 차이 파악 - 두 제시문의 차이를 제시문 [마]의 ‘심리적 편견’, 제시문 [바]의 감각의 선택적 작용에 초점을 맞추어 차이를 서술함	5점
	형식의 완결성 - 답안 서술 구조의 완결성, 어휘 및 문장 전체의 표현력, 분량 배분	5점
3-(2)	대상의 실재(實在)에 대한 제시문 [바]의 견해 서술 - 감각을 통한 지각의 여부와 무관하게 대상은 언제나 실재한다는 관점을 서술함 - 대상의 ‘실재’를 파악할 수 있다는 입장을 서술함 - 조건이 달라지면 대상이 감각되는 내역과 수위도 크게 달라진다는 점을 서술함	5점
	대상의 실재(實在)에 대한 제시문 [사]의 견해 서술 - 독립적 ‘실재’를 상정한 실재론자들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서술함 - 대상의 ‘실재’를 있는 그대로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관점을 서술함 - 감각 경험의 조건이 달라져도 변화의 폭이 크지 않다는 점을 서술함	5점
	제시문 [바]와 제시문 [사]의 견해차를 파악 - 대상의 ‘실재’ 여부에 대한 상반된 견해를 도출함 - 대상의 ‘실재’를 파악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상반된 견해를 도출함 - 조건에 따라 감각 경험에 큰 차이가 생기는지 여부에 대한 상반된 견해를 도출함	5점

인문 II · 문항 1

[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유학에서 ‘수기(修己)’는 사물을 탐구하고 앎을 투철히 하고 뜻을 성실하게 하고 마음을 바르게 하여 자신을 닦는 일이며, ‘치인(治人)’은 집안을 바르게 하고 나라를 통치하고 세상을 평화롭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율곡 이이는 수기를 위한 수양론과 치인을 위한 경세론을 전개하면서, 많은 논설에서 법제 개혁론을 펼쳤다. (중략)

조선에서 법전의 기본적인 원천은 ‘수교(受敎)’이다. 어떤 사건이 매우 중대하다고 여겨지면 국왕은 조정의 회의를 열어 처리 지침을 만들어 사건을 해결한다. 이 지침이 앞으로든 같은 종류의 사건을 해결하는 데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국왕이 하명하는 형식의 법령으로 만들어지는데, 이를 수교라 한다. 그리고 이후의 시행 과정에서 폐단이 없고 유용하다고 확인된 수교들은 다시 다듬어지고 정리되어 ‘록(錄)’이라는 이름이 붙은 법전에 실린다. 여기에 수록된 규정들 가운데에 지속적인 적용을 거치면서 영구히 시행할 만한 것이라 판정된 것은 마침내 ‘대전(大典)’이라는 법전에 오르게 된다. 성종 때에 확정된 『경국대전』(1485)은 이 과정을 거친 규정들을 체계적으로 집대성한 통일 법전이다. 꾸준한 정련을 거쳐 ‘대전’에 오른 이 규정들은 ‘양법미의(良法美意)’라 하였다. 백성들에게 향구히 시행하는 아름다운 규범이라는 의미이다. 실제로 이 『경국대전』은 조선 왕조가 끝날 때까지 국가 기본 법전의 역할을 수행해 왔고, 그 안에 실린 규정들은 개정되지 않았다. 선왕들이 심혈을 기울여 만들고 오랜 시행으로 검증하여 영원토록 시행할 것으로 판정된 규범은 ‘조종성헌(祖宗成憲)’이라 불렸고, 이를 함부로 고칠 수 없다고 생각했다. 왕도(王道)에 근접하였다고 여긴 것이다.

율곡은 성종을 이은 연산군 때 제정된 조세 법령이 여전히 백성의 삶을 피폐하게 하는데도 고쳐지지 않는 실정을 지적하는 등, 폐단이 있는 여러 법령들을 거론한다. 이런 법령들은 고수할 것이 아니라 바꾸어야만 한다고 역설한다. 그래야 오히려 조종성헌이 회복된다는 것이다. 결국 조종성헌에 해당하지 않는 부당한 법령을 두고 오래된 선왕의 법이라며 고칠 수 없다고 고집하는 권세가들에 대하여, 그런 법령은 변하지 않아야 할 ‘이(理)’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론적 공방을 펼쳤다.

[나]

1764년에 발간된 체사레 베카리아의 『범죄와 형벌』은 커다란 반향을 일으켰다. 사람은 대가 없이 공익만을 위하여 자유를 내어놓지는 않는다. 끊임없는 전쟁과 같은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자유의 일부를 떼어 주고 나머지 자유의 몫을 평온하게 누리기로 합의한 것이다. 따라서 사회의 형성과 지속을 위한 조건이라 할 법은 저마다의 행복을 증진시킬 때 가장 잘 준수되며, 전체 복리를 위해 법 위반자에게 설정된 것이 형벌이다. 베카리아가 볼 때, 형벌은 범죄가 일으킨 결과를 되돌려 놓을 수 없다. 또한 인간을 괴롭히는 것 자체가 그 목적인 것도 아니다. 형벌의 목적은 오로지 범죄자가 또다시 피해를 끼치지 못하도록 억제하고, 다른 사람들이 그 같은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예방하는 데 있을 뿐이다. 이는 범죄로 얻을 이득, 곧 공익이 입게 되는 그만큼의 손실보다 형벌이 가하는 손해가 조금이라도 크기만 하면 달성된다. 그리고 이러한 손익 관계를 누구나 알 수 있도록 처벌 체계는 명확히 성문법으로 규정되어야 하고, 그 집행의 확실성도 갖추어져야 한다. 결국 범죄를 가로막는 방벽으로 형벌을 바라보는 것이다. 이 울타리의 높이는 공익을 훼손한 정도에 비례해야 하는 것이다. 그것을 넘어서는 처벌은 폭압이며 불필요하다. 베카리아는 말한다. 상이한 피해를 일으키는 두 범죄에 동일한 형벌을 적용한다면 더 무거운 죄에 대한 억지력이 상실되지 않겠는가. 그는 인간이 감각적인 존재라는 사실에 맞추어 제도가 운용될 것을 역설한다. 가장 잔혹한 형벌도 계속 시행되다 보면 사회 일반은 그에 무디어져 마침내 그런 것을 봐도 옥살이에 대한 공포 이상을 느끼지 못한다. 인간의 정신에 크나큰 효과를 끼치는 것은 형벌의 강도가 아니라 지속이다. 이처럼 베카리아는 ‘잔혹한 형벌’을 반대하여 휴머니스트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말하여 공리주의자로, 자유로운 인간들 사이의 합의를 바탕으로 논의를 전개하여 사회 계약론자로 이해된다.

[다]

특정 상황에서 어떤 방안을 선택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그 방안이 갖는 효용이라고 하며, 효용을 최대화하는 행동을 합리적 행위라고 한다. 허버트 사이먼은 합리적 행위와 관련하여 여러 관점을 제시했다. 그중, 포괄적 합리성은 의사를 결정하는 행위자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모든 방안을 찾는다고 보는 관점이다. 나아가 행위자는 각 방안에서 초래될 모든 결과를 정확히 평가하여 효용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의도적으로 선택하며, 이러한 경향이 행위자의 특성에 상관없이 언제나 일관되게 선택 과정에 반영된다고 전제한다.

‘합리적 행위자 모델’은 포괄적 합리성을 바탕으로 정책 행위를 설명한다. 이 모델은 결정된 정책 행위가 특정 목적에 대해 최대 효용을 갖는 방안이라고 상정하기 때문에 그 목적을 찾아냄으로써 행위자가 왜 그러한 방안을 선택했는지를 설명한다. 이 모델에서는 단일한 의사결정 행위자인 국가가 정책 행위를 결정한 목적을 몇 가지로 예상해 보고, 분석하고자 하는 정책 행위가 각각의 목적에서 갖는 효용을 계산한다. 그 결과 가장 큰 효용을 갖게 되는 목적을 찾아 선택의 의도를 추론하는 것이다. 이때 행위자는 언제나 일관된 경향으로 결정을 내리는 존재이므로 행위자가 처리한 상황과 목적에 대한 객관적 지식만으로 정책 행위를 해석할 수 있다.

[문항 1]

- (1) 제시문 [가]와 제시문 [나]의 법의 성격을 제정 주체와 목적을 중심으로 대비하시오. [20점]
- (2) 제시문 [다]의 ‘합리적 행위자 모델’을 적용하여 제시문 [나]에서 베카리아가 ‘잔혹한 형벌’을 반대한 의도를 설명하시오. [20점]

■ 예시 답안

문항 1-(1)

제시문 [가]에서는 조선시대의 율곡 이이의 법제 개혁론이 제시되어 있고, 제시문 [나]에서는 공리주의와 사회계약설에 입각한 형벌의 도입과 관련하여 법이 언급되고 있다. 두 제시문은 상이한 역사적 맥락 하에서 법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먼저 법의 제정 주체와 관련하여, 제시문 [가]에서는 국왕의 하명 형식에서 비롯되어 수교와 록, 대전을 거쳐 성문화되는 데서 드러나듯이, 전근대 왕정사회의 통치자인 국왕이 주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제시문 [나]에서 법은 사회의 구성원인 자유로운 인간들이 합의를 통해 안정된 사회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일부의 자유를 양보하면서 제정된 것이다. 다음으로 법의 목적과 관련하여 제시문 [가]에서는 백성들에게 시행됨으로써 왕도를 실현하기 위한 통치의 수단이라는 성격을 띤다. 그러나 제시문 [나]에서 법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고 하는 사회 전체의 복리를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범죄의 예방과 사회의 안정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법은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하고 또 집행의 확실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성문법의 형태로 공포되었다.

문항 1-(2)

제시문 [다]의 합리적 행위자 모델은 정책 행위를 결정한 목적을 몇 가지로 예상하고, 정책 행위가 가장 큰 효용을 갖게 되는 목적을 찾는 것으로 선택의 의도를 설명한다. 제시문 [나]의 베카리아는 ‘잔혹한 형벌’은 형벌의 강도에 집중한 것이며, 계속해서 시행될 경우 사람들이 그에 무디어져 더 무거운 죄에 대한 억지력을 상실할 수 있다고 보았다. ‘잔혹한 형벌’은 인간을 괴롭히는 목적에서는 높은 효용을 가질 수 있지만, 재범과 모방범죄를 예방하는 목적에서는 낮은 효용을 갖는다. 휴머니스트, 공리주의자, 사회 계약론자인 베카리아의 입장에서 형벌의 목적은 범죄 예방이다. 베카리아는 형벌이 가하는 손해가 공익이 입게 되는 손실보다 크기만 하면 형벌의 효과가 있으며, 형벌은 공익을 훼손한 정도에 비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잔혹한 형벌’은 과도한 처벌이며 베카리아가 주장하는 형벌의 목적에서 가장 큰 효용을 갖지 않는다.

■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1-(1)	제정 주체에 대한 제시문 [가]와 [나]의 입장 대비 - 제시문 [가]는 전근대 왕정사회의 통치자인 국왕 - 제시문 [나]는 자유로운 인간의 합의. 사회계약설에 기반함	7점
	목적에 대한 제시문 [가]와 [나]의 입장 대비 - 제시문 [가]는 왕도 실현과 백성에게 시행하는 통치의 목적. 수교, 록, 대전을 통한 성문화 - 제시문 [나]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공리주의. 범죄 예방을 위하여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함	8점
	형식의 완결성 - 답안 서술 구조의 완결성, 어휘 및 문장 전체의 표현력, 분량 배분	5점
1-(2)	제시문 [나]의 베카리아가 ‘잔혹한 형벌’을 반대하는 이유를 합리적 행위자 모델을 적용하여 적절하게 설명 - ‘잔혹한 형벌’은 지속될 수 없으며, 점차 더 무거운 범죄에 대한 억지력을 상실할 수 있다 - ‘잔혹한 형벌’은 재범과 모방범죄를 예방하는 목적에 대해 최대 효용을 갖는 방안은 아니다 - 휴머니스트, 공리주의자, 사회 계약론자인 베카리아의 입장에서 형벌의 목적은 범죄 예방이다 - 베카리아는 형벌이 가하는 손해가 공익이 입게 되는 손실보다 크기만 하면 형벌은 효용이 있으며, 형벌은 공익을 훼손한 정도에 비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잔혹한 형벌’은 과도한 처벌이며 베카리아가 주장하는 형벌의 목적에서 가장 큰 효용을 갖지 않는다	10점
	제시문 [다]의 합리적 행위자 모델에 관하여 적절하게 설명 - 합리적 행위자 모델은 정책 행위의 의도를 설명한다 - 합리적 행위자 모델은 몇 가지의 목적을 예상한다 - 합리적 행위자 모델은 정책 행위가 가장 큰 효용을 갖게 되는 목적을 찾는 것이다	5점
	형식의 완결성 - 답안 서술 구조의 완결성, 어휘 및 문장 전체의 표현력, 분량 배분	5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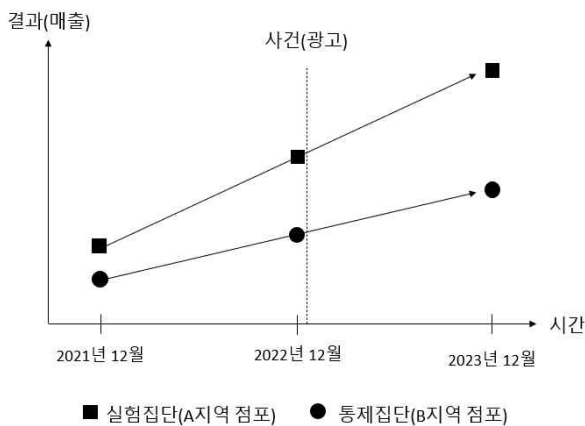
인문 II · 문항 2

[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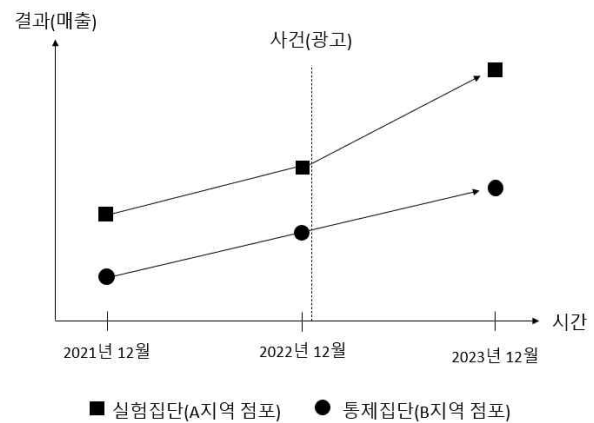
※ 공통 제시문 중 [가]~[다]는 앞 문항(인문 II · 문항 1)을 참고하시오.

[라]

어떤 사건의 효과를 평가한다는 것은 사건이 발생한 경우의 결과와 사건이 없었을 경우에 나타났을 결과를 비교하는 일이다. 즉, 사건을 경험한 표본으로 구성된 실험집단의 결과와 사건을 경험하지 않은 표본으로 구성된 통제집단의 결과를 비교하여 그 차이로 사건의 효과를 평가한다. 이 방법은 사건이 없었더라도 통제집단에서 일어난 변화와 같은 크기의 변화가 실험집단에서도 일어났을 것이라는 ‘평행추세 가정’에 근거해서 이루어진다. 가령 광고(사건)가 점포의 매출에 미친 효과를 평가할 때, 평행추세 가정이란 광고를 실시한 실험집단(A지역 점포)과 광고를 실시하지 않은 통제집단(B지역 점포)에서 광고를 내기 전 매출의 증감 추이가 평행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1>을 보면, 광고를 내기 전인 2021년 12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A지역과 B지역 점포의 매출 증감 추이가 같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광고를 내기 전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은 이미 광고 이외에도 다른 차이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광고 이후에 생기는 매출의 차이가 과연 광고 때문인지, 다른 요인 때문인지 결정하기 어렵게 만든다. 반면 <그림 2>를 보면, A지역과 B지역 점포에서 광고를 내기 전 매출의 증감 추이가 같다. 이는 광고를 내기 전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은 광고 이외의 다른 차이가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광고 이후에 생기는 매출의 차이가 광고 때문이라고 결론내릴 확률을 높이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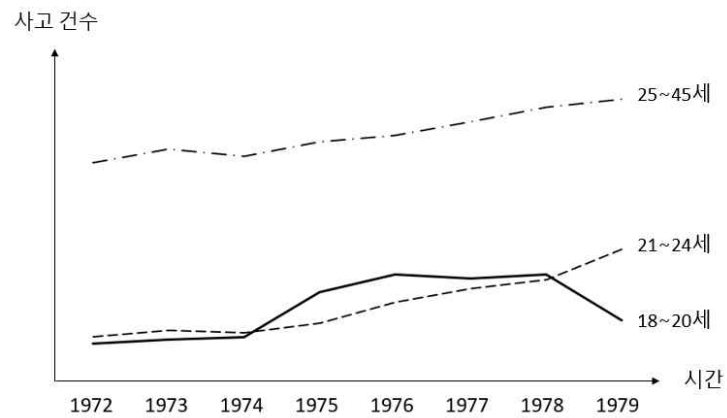
<그림 1>



<그림 2>

[마]

미시간주에서는 1979년 음주 연령이 18세에서 21세로 상향 조정되었다. 이것이 교통사고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그림 3>의 실선은 음주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낸 18~20세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시계열(time-series) 통계를 보여 주는데, 1979년 교통사고의 감소를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감소는 음주 연령 상향의 결과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그해 휘발윳값이 인상되었거나 평소보다 많은 눈이 내렸다면, 운전량이 감소하여 교통사고가 줄어들었을 수 있다. 하지만 그래프에서 비교를 위한 21~24세 및 25~45세의 시계열 통계는 1979년에 감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대안적인 설명을 배제하게 된다. 따라서 음주 연령 상향이 사고 감소에 영향을 주었다는 설명에 대한 신뢰가 강화된다. 이와 같이 인과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통제집단(비교집단)을 설정할 때, 좋은 설계 방법은 ‘지역·초점 통제집단’을 사용하는 것이다. 지역 통제집단이란 실험집단(18~20세)과 동일한 지역에 속한 집단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미시간주 운전 예시에서 두 통제집단은 모두 같은 주에서 추출되었으므로 지역 통제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초점 통제집단이란 실험집단과 유사한 특성을 가진 집단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미시간주 운전 예시에서 두 통제집단은 실험집단보다 나이가 많고 운전 경험이 더 많기 때문에 초점 통제집단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림 3>

2 제시문 [라]에서 ‘평행추세 가정’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이유와, 제시문 [마]에서 ‘지역·초점 통제집단’을 설정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두 방법의 공통된 목적을 서술하시오. [30점]

■ 예시 답안

제시문 [라]의 광고 예시에서 평행추세 가정을 만족하게 되면, 광고(사건)를 실시하기 전 A점포와 B점포의 매출 증감 추이가 비슷하다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 이는 두 점포의 여러 가지 영업 상황이나 조건이 사건 전에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만약 실험집단(A점포)에 대한 광고 실시 이후에 A점포와 B점포의 매출 증감 추이가 달라지게 되면, 이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그 광고 때문이라고 결론내릴 확률을 높이게 된다.

제시문 [마]의 미시간주 음주 연령 상향 예시에서는 지역·초점 통제집단을 설정함으로써 음주 연령이 상향된 실험집단과 지역적으로도 특성적으로도 비슷한 통제집단(비교 대상)을 확보하게 된다. 실험집단과 가장 비슷한 통제집단을 설정함으로써 만약 실험집단에 대한 음주 연령 상향 이후에 사고의 횟수가 달라진다면 이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음주연령 상향조정 때문이라고 결론내릴 확률을 높이게 된다.

제시문 [라]의 광고 예시에서 평행추세 가정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제시문 [마]의 음주 연령 상향 예시에서 지역·초점 통제집단을 설정하는 목적은 사건과 결과의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인과관계를 결론내리기 위해서는 결과에 영향을 준 요인이 연구자가 생각하는 실험 조건(또는 사건)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하는데, 이 두 가지는 모두 그 확신을 높이기 위한 장치이다. 즉, 사건의 발생 이전에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이 최대한 모든 측면에서 서로 비슷한 조건을 가진 상태라는 확신이 들 때, 만약 사건 발생 이후 두 집단 간 결과의 차이가 발생한다면 다른 이유가 아니라 사건 때문이라고 결론 내릴 확률을 높이게 된다.

■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2	제시문 [라]의 광고 예시에서 평행추세 가정의 의미와 이유 설명 - 광고 예시에서 평행추세 가정은 광고 사건 이전에 두 점포의 매출 증감 추이가 같다는 것을 의미함 - 이는 광고 이전 두 점포의 상황이나 영업 조건이 동일하다는 것을 의미함 - 이와 같은 평행추세가 광고와 매출 간 인과관계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 설명	7점
	제시문 [마]의 미시간주 음주 연령 상향 예시에서 지역·초점 통제집단의 의미와 이유 설명 - 지역·초점 통제집단을 설정한다는 것은 음주 연령이 상향된 실험집단과 지역적으로도 특성적으로도 비슷한 통제집단(비교 대상)을 확보할 수 있음을 의미 - 이와 같은 지역·초점 통제집단의 설정이 음주 연령 상향과 사고 횟수 간 인과관계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 설명	7점
	평행추세 가정의 확인과 지역·초점 통제집단의 설정이 모두 사건과 결과의 인과관계를 결정내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 설명: 답안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으로서 이 설명이 정확히 되어야 문제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했다고 볼 수 있음 - 인과관계를 결론내리기 위해서는 단지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을 나누는 것뿐만 아니라 두 집단이 사건 이전에 모든 측면에서 비슷한 조건을 가진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한다는 부분 설명 - 모든 조건이 동일하고 오직 사건(광고 및 음주 연령 상향)만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사이에 차이가 있으므로 결과의 차이가 사건의 유무 때문이라고 결론 내리게 됨	11점
	형식의 완결성 - 답안 서술 구조의 완결성, 어휘 및 문장 전체의 표현력, 분량 배분	5점

인문 II · 문항 3

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30점]

[Ⅰ]

경제학에서는 의사결정권을 지닌 주인과 주인을 대리하여 직접 행위를 수행하는 대리인 간의 정보 비대칭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통칭하여 ‘대리인 문제’라고 부른다. 대리인 문제는 크게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의 두 유형으로 구분되는데, ‘역선택’은 계약 전 숨겨진 정보를 지닌 대리인이 주인의 후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래를 잠재적으로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제시하는 사전적 정보 비대칭에 의한 대리인 문제를 일컫는다. 이러한 역선택의 예로는 보험계약자(주인)가 보험회사(대리인)의 허위·과장광고(사전 정보)로 부적절한 보험상품에 가입함으로써 추후 보험사건이 발생하더라도 기대했던 보험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도덕적 해이’는 계약 후 대리인이 자신의 행위가 주인에 의해 완벽하게 관측되지 않는 상황을 이용하여 의도적으로 주인의 부를 자신에게 재분배하는 부당행위를 저지르는 사후적 정보 비대칭에 의한 대리인 문제를 지칭한다. 보험계약자(주인)가 납입한 보험료를 보험회사(대리인)가 향후 보험금 지급을 위해 적절히 운용·관리하지 않고 임직원에게 과도한 보상을 지급하며 부적절하게 사외유출(사후 정보)하는 경우가 이러한 도덕적 해이에 해당하는 예라 할 수 있다.

[Ⅱ]

자본시장에서 가장 보편적 기업 형태라 할 수 있는 ‘주식회사’는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어 대리인 문제가 발생하기 쉽다는 구조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즉, 회사의 주인은 회사의 주권을 나타내는 주식을 보유한 주주임에도 주주총회에서 선임되어 주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경영자가 주주를 대신하여 회사를 경영함에 따라 경영자가 주주의 이익에 반해 자신의 사익을 추구할 가능성이 상존하기 때문이다.

[Ⅲ]

‘재무제표’는 가정의 가계부나 학생의 성적표와 같이 기업의 경영활동 결과를 정해진 기준과 양식에 따라 외부 정보이용자에 전달하는 일련의 보고 체계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재무제표는 특정 기간 동안 기업이 창출한 부의 크기를 나타내는 재무성과 정보를 영업활동 등에서 발생한 경제적 효익을 의미하는 ‘수익’과 그러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사용된 경제적 자원을 의미하는 ‘비용’을 통해 집약적으로 전달한다. 그리고 외부 정보이용자는 수익의 크기를 통해 기업의 영업 규모를 파악하는 것은 물론,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이익으로 창출된 부의 절대 규모를 측정한다. 또한 이익과 수익의 상대적 비율을 통해 기업의 수익성을 측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다양한 지표들을 과거 혹은 동종업계의 타 기업과 비교함으로써 해당 기업의 재무성과를 보다 체계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처럼 재무제표는 기업 경영활동과 관련한 주요 정보를 일목요연하게 제시하여 기업 경영활동에 대한 외부 평가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잠재적 주주의 올바른 투자 의사결정을 도모하고, 기존 주주의 경영진 교체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주주를 포함한 외부 정보이용자의 의사결정을 보조하는 핵심 정보 체계로 기능한다.

- (1) 제시문 [Ⅰ]을 참조하여, 제시문 [Ⅱ]의 주식회사 제도에서 발생 가능한 다음의 두 사례가 각각 어떠한 유형의 대리인 문제에 해당하는지 설명하시오. [5점]

사례 1: 사기, 횡령 등 과거 범죄 이력을 숨긴 경영자 선임

사례 2: 경영자의 과도한 성과보수 수령 및 불필요한 고급 차량 사용

- (2) 제시문 [Ⅰ]과 제시문 [Ⅲ]을 참조하여, 제시문 [Ⅱ]의 주식회사 제도에서 재무제표가 주주와 경영자 간의 ‘도덕적 해이’ 문제를 어떻게 완화할 수 있는지 설명하시오. [10점]

(3) 제시문 [III]과 아래 설명을 참조하여, A기업의 금년도 이익을 계산하고 재무성과를 평가하시오. [15점]

광고업을 영위하는 A기업은 금년 중 고객에게 105원의 광고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그리고 사무실 여유 공간을 임대하여 임대수익 15원이 발생했다. 그리고 이러한 광고 및 사무실 임대 서비스와 관련하여 임직원 급여 50원, 모델료 등 광고제작비 30원,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 10원, 수도광열비 등 기타 비용으로 6원이 발생했다. 이외에 추가적으로 발생한 수익과 비용은 없다. A기업의 전년도 재무성과와 동종업계에 있는 B기업의 전년도 및 금년도 재무성과 정보는 다음 <표>와 같다.

구분		수익	비용
A기업	전년도	80원	60원
B기업	전년도	88원	66원
	금년도	100원	85원

■ 예시 답안

문항 3-(1)

‘사례 1’은 주주가 경영자의 과거 범죄 이력(사전 정보)을 파악하지 못한 채 경영자를 잘못 선임한 상황이므로 ‘역선택’에 해당한다.

‘사례 2’는 경영자가 자신의 의사결정 과정이 외부에서 완벽하게 관측되지 않는 상황에서 주주 이익에 반해 자신에게 유리한 의사결정(사후 정보)을 내리는 상황이므로 ‘도덕적 해이’에 해당한다.

문항 3-(2)

주주는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경영자의 경영활동을 평가하여 그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주주총회에서 현(신임) 경영진을 해임(선임)하는 경영진 교체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다. 따라서 경영자는 주주가 자신의 행위를 직접 관측할 수 없더라도 재무제표를 통해 드러나는 자신의 경영활동 결과를 인정받고자 주주를 위해 신의성실 의무를 다할(혹은 재무제표를 통해 드러나는 자신의 경영활동 결과를 인정받아 주주에 의해 교체되지 않기 위한) 유인을 가지게 되며, 그 결과 경영자가 주주의 이익을 희생시켜 자신의 사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도덕적 해이 문제가 완화될 수 있다.

문항 3-(3)

A기업의 금년도 이익은 수익 120원*1에서 비용 96원*2을 차감한 24원이다. 이는 전년도 이익 20원*3보다 4원 증가한 수치다. 수익 규모도 120원으로 전년도 80원 대비 50% 증가하였다. 그러나 A기업의 금년도 수익성은 20%*4로 전년도 25%*5 대비 5%p 감소하였다. 이를 동종업계에 있는 B기업과 비교하면, 전년도에는 A기업의 수익과 이익 규모가 B기업보다 작았으나 금년도는 B기업보다 커졌다. A기업의 금년도 수익성도 전년도 대비 5%p 감소하긴 했으나, 10%p*6가 감소한 B기업에 비해서는 그 폭이 상대적으로 작다. 따라서 A기업의 경우 금년도에 수익과 이익 규모가 모두 증가하며 외형적 성장을 이루었을 뿐만 아니라, 수익성도 일부 악화되었으나 그 정도가 동종업계의 타 기업에 비해 작다는 점에서 재무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1 120원=105원+15원

*2 96원=50원+30원+10원+6원

*3 20원=80원-60원

*4 20%=24원÷120원

*5 25%=20원÷80원

*6 10%p=25%-[88원-66원]÷88원]-15%=[100원-85원]÷100원]

■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3-(1)	- 사례 1, 사례 2 모두 대리인 유형 정답 제시 - 사례 1, 사례 2 모두 적절한 근거 제시 (참고) 1. 사례 1, 사례 2 중 하나에 대해서만 대리인 유형 정답 제시. 사례 1, 사례 2 중 하나에 대해서만 적절한 근거 제시 2. 사례 1과 사례 2에서 주어진 정보의 성격 자체가 각각 사전 정보 및 사후 정보에 해당하므로 해당 정보의 성격을 굳이 명시할 필요는 없음	5점
3-(2)	- 주주가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경영자의 경영활동을 평가한다는 사실 언급 - 경영평가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주주가 경영진 교체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음을 언급 - 경영자가 재무제표를 통해 드러나는 자신의 경영활동 결과를 인정받고자(혹은 주주에 의해 교체되지 않기 위해) 주주를 위해 신의성실 의무를 다할(혹은 사익을 추구하지 않을) 유인을 가지게 됨을 언급	10점
3-(3)	- A기업의 금년도 이익 계산 - A기업의 금년도 재무성과, 전년도와 비교 - A기업의 금년도 재무성과, B기업과 비교 - 앞선 분석결과와 연계하여 A기업의 금년도 재무성과가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음을 논리적으로 기술 (참고) 문제에서 직접적으로 계산을 요구한 A기업의 금년도 이익(24원) 외에 다른 값은 명시적으로 제시되지 않더라도 재무성과 분석내용이 적절한 경우 점수 부여	15점

2024학년도 인문계열 I · II

인문 I · 문항 1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키니코스학과 철학자 디오게네스는 어떤 사람이 그에게 어디서 왔느냐고 물었을 때 “나는 세계의 시민이다.”라고 답했다고 한다. 금욕적인 태도를 추구하며 세속의 가치를 부정했던 디오게네스는 참된 가치와 거짓 가치의 차이만이 유일한 구분이고 다른 구분은 쓸데없다고 여겨서, 어디 출신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계 시민으로서 같은 인간이라는 점이 중요하다고 본 것이다. 키니코스학파의 세계 시민주의는 정치적 공동체를 목표로 한 것이 아니라 기존의 사회적 관습이나 규약으로부터 자유로운 자연적 공동체를 추구한 것이었다. 이들은 세계 시민의 개념에 해당하는 우주적 국가의 시민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인류를 세계 시민으로 전향시키고자 했다. 키니코스학파의 세계 시민주의는 이후 모든 인간이 이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성적 원리에 의해 구성된 우주에 일치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주장한 스토아학파로 이어졌다.

키니코스학과 철학의 영향을 받은 스토아 철학의 창시자 제논은 온 인류가 동료 시민이며 기존의 공동체를 넘어서 하나의 삶의 방식과 질서로 다스려지는 세계 공동체를 지향했다. 초기 스토아학파는 우주 혹은 자연에 일치하는 삶이 기존의 정치 체제인 폴리스(polis)를 거부하는 것이라고 여기지 않았다. 이들은 인류의 공동선을 도모하기 위해서라면 자신이 속한 폴리스든 다른 폴리스든 어느 곳에서라도 정치에 참여할 수 있다고 보았다. 초기 스토아학파는 세계 시민권을 우주 혹은 자연의 법칙에 일치해서 사는 자에게 한정하고, 인류 전체의 유익을 우선적으로 추구했다.

하지만 세계를 지배하고 다스리려는 로마 제국과 코스모폴리스* 자체를 동일시한 로마 시대의 스토아학파는 로마의 시민권을 이성을 가진 온 인류로 확장하면서 로마에 대한 소속감 내지 애국심을 강조했다. 이를 동심원의 비유를 통해 표현한 스토아학파 철학자 히에로클레스는 세계 시민이 되기 위해 지역적 정체성과 소속감을 포기할 필요는 없다고 보았다. 그는 우리에게 지역적 소속이 없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연속적인 동심원들로 둘러싸여 있다고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가장 내부의 원은 우리 자신의 마음이고, 두 번째 원이 직계 가족이며, 세 번째 원은 친족, 네 번째 원은 이웃과 동료 시민, 이웃한 도시의 주민 등이다. 그리고 내부의 모든 원을 포함하는 맨 마지막 원은 인류 일반이다. 이때 우리의 목표는 동심원들이 가능한 한 중심을 향해 가깝게 모이도록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세 번째 원에 속하는 사람들이 마치 두 번째 원에 속하는 사람들인 것처럼 그들을 대우해야 한다는 것이다.

* 코스모폴리스: 우주 전체를 하나의 폴리스로 간주하여 지칭한 용어.

[나]

청나라 황제 옹정제가 만주족의 통치에 저항한 한족 지식인 증정(曾靜)을 다음과 같이 신문(訊問)하였다. “너는 역모를 꾀한 서신에서 말하기를, ‘하늘이 사람과 동물을 낳을 때, 천리(天理)에서는 하나지만 기질(氣質)에 따라 구별이 있게 하였다. 중원에서 태어나 올바름을 얻고서 음양의 덕이 합해지면 사람이 되고, 사방의 변경에서 태어나 마음이 치우치고 음험하여 간사하고 올바르지 않으면 금수(禽獸)가 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금수라고 명명하는 이유는 대개 거주하는 곳이 아주 멀고 언어와 문자가 중원과 서로 통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원에서 태어났다고 하여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며, 변경에서 태어났다고 하여 사람이 될 수 없는 것도 아니다. 사람과 금수는 모두 천지 가운데 존재하여 똑같이 음양의 기운을 부여받는데, 그중에 명명하고 빼어난 것을 얻으면 사람이 되고, 치우치고 이상한 것을 얻으면 금수가 된다. 따라서 사람의 마음은 인의(仁義)를 알지만, 금수에게는 윤리(倫理)가 없는 것이다. 어찌 태어난 곳이 중원인지 변경인지를 근거로 사람과 금수의 차이를 구분할 수 있겠는가?

만약 너의 말대로라면, 중원은 음양이 화합하는 땅이라 오직 인간만 태어나야 할 것이며, 그 공간에 금수가 살아서는 안 될 일이다. 그런데 어찌 중원의 땅 곳곳에 사람이 금수와 뒤섞여 함께 거주하며, 금수의 무리

가 인류보다 훨씬 많은 것인가? 더구나 인류 가운데 어쩔 나처럼 무엄하게 반역을 꾀하여 천량(天良)을 상실하고 인륜을 절멸시킨 금수만도 못한 물건이 나올 수 있단 말인가? 너는 어떻게 대답하겠는가?”

[문항 1] 제시문 [가]에 나타난 세계 시민주의의 변화를 설명하고, 제시문 [나]의 옹정제의 관점에서 제시문 [가]의 히에로클레스의 주장을 비판하시오. [30점]

■ 예시 답안

제시문 [가]에 나타난 세계 시민주의는 크게 세 단계의 변화를 거친다. 우선 키니코스학과 철학자 디오게네스가 주장한 세계 시민주의는 기존의 공동체나 관습을 초월하여 인간을 모두 세계 시민으로서 동등한 존재로 인식했다. 이어 초기 스토아학파는 이성을 가지고 있는 모든 인간이 동료 시민으로서 기존의 공동체인 폴리스를 넘어서 인류 전체의 공동선을 추구했다. 마지막으로 로마 시대의 스토아학파는 로마에 대한 소속감과 애국심을 강조하며, 로마의 시민권을 온 인류로 확장하였다.

제시문 [나]의 웅정제는 사람과 동물의 차이를 태어난 지역으로만 구별하는 편협한 인간관을 통렬히 비판한다. 태어난 곳이 중원이라고 해서 모두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고, 변경에서 태어난 존재도 인의를 알고 양심을 가지면 동등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웅정제의 관점에서 사람은 태어난 곳으로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동물과 차별되는 올바른 마음을 가진 보편적이고 이성적인 존재이다.

히에로클레스는 로마 제국을 코스모폴리스, 즉 우주 전체와 동일시하면서 로마에 대한 소속감을 세계 시민의 기본 조건으로 전제한다. 히에로클레스가 제시한 연속적인 동심원 비유에서도 자신과 가까운 내부의 원과 먼 거리에 있는 외부의 원을 따로 구별하면서 결과적으로 중심과 주변의 거리가 발생하게 된다. 이는 태어난 곳을 기준으로 사람과 동물을 구별한 한족 지식인 증정의 논리와 크게 다르지 않다. 나 자신과 멀고 가까움을 기준으로 세계를 차별적으로 구분하고 있기 때문이다. 태어난 지역에 상관없이 모든 인간을 동일한 존재로 인식한 웅정제의 관점에서 히에로클레스의 주장은 로마의 시민을 세계 인류 가운데 가장 안쪽의 동심원에 위치시킨다는 점에서 결코 보편적일 수 없다.

■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1	제시문 [가]에 나타난 세계 시민주의의 변화상 정리 - 키니코스학과, 초기 스토아학파, 로마 시대의 스토아학파로 이어지는 세계 시민주의의 세 단계 변화를 포착하고 설명함. - 시대별로 제시된 세계 시민주의의 특징을 정리하고 그 변화의 흐름을 서술함.	10점
	제시문 [나]에 나타난 웅정제의 관점을 정리하고, 이를 제시문 [가]의 히에로클레스의 주장과 대조하여 비판 - 태어난 지역의 차이만을 근거로 사람과 동물을 구별해서는 안 된다는 웅정제의 관점을 서술함. - 히에로클레스가 제시한 연속적인 동심원 비유에서 로마에 대한 소속감을 전제로 중심과 주변의 거리가 발생하게 됨을 지적함. - 태어난 지역에 상관없이 모든 인간을 동일한 존재로 인식하는 웅정제의 관점에서 볼 때 히에로클레스의 세계 시민주의가 모순과 한계를 지니고 있음을 서술함.	15점
	형식의 완결성 - 답안 서술 구조의 완결성, 어휘 및 문장 전체의 표현력, 분량 배분	5점

인문 I · 문항 2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다]

A quality of the human brain is known as *induction*, how something positive generates a contrasting negative image in our mind. This is most obvious in our visual system. When we see some color—red or black, for instance—it tends to intensify our perception of the opposite color around us, in this case, green or white. As we look at the red object, we often can see a green halo* forming around it. In general, the mind operates by contrasts. We are able to formulate concepts about something by becoming aware of its opposite. The brain is continually dredging up** these contrasts. What this means is that whenever we see or imagine something, our minds cannot help but see or imagine the opposite. If we are forbidden by our culture to think a particular thought or entertain a particular desire, that taboo instantly brings to mind the very thing we are forbidden. Every no sparks a corresponding yes. We cannot control this vacillation*** in the mind between contrasts. This predisposes**** us to think about and then desire exactly what we do not have.

* halo 후광 ** dredge up ~을 떠올리다 *** vacillation 동요, 흔들림 **** predispose ~한 경향을 띠게 하다

[라]

들뢰즈는 이미지의 개념을 운동 개념과 관련지어 인식론적으로 확장하고, 영화를 새로운 인식의 매개체로 재해석하였다. 그는 영화에서의 카메라 역할에 주목했다. 카메라로 대표되는 영화적 기술은 인간의 지각 작용과 마찬가지로 무한한 이미지의 일부만 취할 수밖에 없으나, 인간의 지각처럼 어떤 특정한 시점이나 의도에 구속되지 않아 자유로우며 자연적 지각과는 전혀 다른 메커니즘으로 운동을 생산한다는 것이다. 들뢰즈는 우리가 파악할 수 없는 대상의 실재를 잠재성으로 보고, 이를 현실성과 대립되는 것으로 파악했다. 영화는 스크린을 통해 이미지의 움직임을 보여 줌으로써 시각적 조건에 관계없는 운동의 이미지를 보여 준다. 카메라 자체가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운동의 흐름이 더 이상 제한된 시각에 고정되지 않고 나타나는 것이다. 그래서 들뢰즈는 영화를 인간의 지각에 감지되지 않는 잠재성의 일부인 미세한 실재들을 포착해 내는 새로운 사유의 길로 보았다.

들뢰즈가 영화를 통해 기대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부분이다. 카메라는 기계의 눈이기 때문에 현실에 무관심하다. 따라서 카메라를 통한 현실의 지각은 우리 눈으로 세상을 지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현실에 가깝다. 물론 그는 우리의 눈과 마찬가지로, 어떤 카메라도 현실을 있는 그대로 담아내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카메라도 결국 우리의 시각 구조를 모델로 만든 장치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다만 카메라는 인간의 시각 구조와 닮았음에도 개념이나 관습 혹은 신체적 구속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고 세상을 새로운 이미지로 보여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인간의 시각이 수용할 수 있는 지각의 궁극적인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들뢰즈는 카메라의 눈이 인간의 눈보다 더 뛰어날 수도 있다고 보았던 것이다.

들뢰즈는 영화가 인간의 눈이 아닌 카메라라는 기계의 눈에 담긴 지각을 바탕으로 한다는 점을 포착했다. 그는 영화가 표상, 관습에 의해 지배되었던 우리의 사고에 새로운 충격을 던질 수 있다고 믿었고, 영화 자체가 가지고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밝혀낸 셈이다. 결국 들뢰즈는 영화가 인간의 시각을 극복할 수 있게 함으로써 고정 관념을 탈피하고 새로운 사유를 창조할 수 있는 철학적 위상을 지닌 예술이라고 본 것이다.

[문항 2] 제시문 [다]의 ‘induction’의 의미를 설명하고, 인지 과정이라는 측면에서 제시문 [다]와 제시문 [라]를 비교하시오. [30점]

■ 예시 답안

제시문 [다]의 ‘induction’(유도/이끌어냄)이란 인간의 두뇌가 작동하는 방식으로 현실을 수용하기보다 그것과 대조되는, 또는 반대되는 여러 가능성을 상상하고 추구하게 만드는 인지 과정이다. 이것은 우리가 빨간색의 물체를 보는, 즉 시각을 통한 인지 활동은 물론 사회적 금기에 반발하는 예로도 나타나며, 궁극적으로는 인간의 전반적인 인지 과정을 의미한다.

제시문 [다]는 두뇌활동의 특징으로 현실로 존재하는 대상에 대한 대조 또는 반대의 가능성을 상상하고 추구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 글은 ‘induction’으로 표현된 두뇌활동의 영향이 시각을 통한 인지 과정에서만 국한되지 않고, 대상에 대한 개념화, 또는 사회적 금기에 대한 즉각적인 거부 행동 등에도 나타나며, 따라서 우리의 인지 과정은 선천적이라고 주장한다.

제시문 [라]는 들뢰즈가 새로운 인식의 매개체라는 철학적 지위를 부여한 영화의 카메라가 비록 인간의 눈이라는 시각기관을 따라 만든 것이지만, 개념, 관습, 신체적 구속으로부터 자유롭기 때문에 인간의 지각으로는 감지되지 않는 미세한 움직임을 통해 드러나는 대상의 실재를 더 정확하게 포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제시문 [다]와 [라] 모두 인지 과정을 고찰하면서, 현실이라는 틀에서 벗어나야 함을 공통적으로 강조한다. 즉, 제시문 [다]는 두뇌활동을 통해서 현실과는 대조적인 또는 반대의 가능성을 상상하고 추구한다고 주장하고, 제시문 [라]는 들뢰즈의 예를 통해 현실성과 대립되는 대상의 실재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영화의 카메라처럼 기존의 개념, 관습, 신체적인 제약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런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제시문 [다]는 우리를 현실로부터 자유롭게 만드는 것이 두뇌라는 선천적인 기관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즉, 현실과는 다른 가능성을 꿈꾸고, 그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인간의 타고난 인지 과정이고 그 결과라는 주장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제시문 [라]는 들뢰즈의 주장처럼 인지 과정은 현실 속 기존의 개념, 관습 또는 신체의 구속 때문에 대상의 미세한 실재를 파악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 글은 영화의 카메라도 대상의 실재를 완벽하게 파악하지는 못하지만, 기존의 개념, 관습 또는 신체의 구속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롭기 때문에 인간의 지각으로는 감지되지 않는 미세한 움직임을 통해 드러나는 대상의 실재를 더 정확하게 포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우리가 시각을 통해 성취할 수도 있는 지각의 궁극적인 가능성을 오히려 영화의 카메라가 실현하는 것이고, 현실의 개념, 관습 심지어 신체적 구속으로부터 탈피해야 우리에게 새로운 사유의 길이 열린다는 주장이다.

■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2	제시문 [다]의 ‘induction’ 정의 설명 - 두뇌활동의 특성에 따른 인지 과정 - 현실의 현실성을 수용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대조 또는 다른 가능성 추구 - 시각인식에만 국한되지 않고 사회적 금기 등에 대한 전반적인 인지 과정	5점
	제시문 [다], [라] 요약 - 제시문 [다] 요약 - 제시문 [라] 요약	5점
	제시문 [다]와 제시문 [라]의 비교 설명 (1) 제시문 [다]와 제시문 [라]의 공통점 설명 - 인지 과정을 통찰하면서 그 궁극적인 목적이 현실/현실성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임을 강조 (2) 제시문 [다]와 제시문 [라]의 차이점 설명 - 제시문 [다]는 선천적 인지기관인 두뇌활동으로 현실 또는 현실성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강조 - 제시문 [라] a. 인간의 인지 과정은 대상의 실재적 잠재성을 파악하는 궁극적인 가능성을 실현할 수 있으나, 현실 속에서는 개념, 관습, 심지어 신체적 구속 때문에 불가능함 b. 개념, 관습, 심지어 신체적 구속에서 자유로운 영화의 카메라가 인지 과정의 궁극적인 가능성을 실현한다고 강조함	15점
	형식의 완결성 - 답안 서술 구조의 완결성, 어휘 및 문장 전체의 표현력, 분량 배분	5점

인문 I · 문항 3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마]

‘나’가 가질 수 있는 기본적 관계는 ‘나’와 ‘너’의 관계, 그리고 ‘나’와 ‘그것’의 관계뿐이다. ‘나’와 ‘그것’의 관계는 주체와 객체의 관계이자 차등의 관계이지만, ‘나’와 ‘너’의 관계는 주체와 주체의 동격 관계이며, 두 유일무이한 존재들의 대등 관계이다. (중략) 그러므로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은 ‘인간은 무엇인가?’라는 질문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다. 인간이 무엇인지 안다고 해서 ‘나’를 아는 것은 아니며, 인간을 아는 지식과 ‘나’를 아는 지식이 동일한 성질의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인간에 대한 지식은 ‘그것’에 대한 지식이고, 그것은 이론적으로 혹은 객관적으로 규정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다. 객관적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원칙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지식이다. 그러나 ‘나’에 대한 지식은 객관적일 수 없으며, 좁은 의미로 ‘지식’이 될 수도 없다. 그것은 지식 이상이고, 지식이 일으킬 수 없는 인격 전체가 동원된 힘과 반응을 불러일으킨다. 우리가 진정한 ‘나’가 될 수 있는 것은 ‘너’가 될 수 있는 다른 사람이 있기 때문이요, 그 사람과 ‘나’와 ‘너’의 관계를 맺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다른 사람이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하더라도 ‘나’에게 어떠한 반응도 보이지 않으면 진정한 관계는 형성될 수 없다.

[바]

무신론자였던 사르트르는 인간은 사물과 달리 그 본질이나 목적을 가지고 판단할 수 없다고 보았다. 예를 들어, 연필은 처음부터 ‘쓴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다. 무엇인가 쓴다는 것은 연필의 본질이므로, 연필의 존재는 그 본질로부터 나온다. 즉 사물은 본질이 그 존재에 선행하는 것이다. 그러나 인간은 사물과 다르다. 사르트르는 인간이 신의 뜻에 따라 만들어진 존재라는 기존의 통념을 거부하면서, 인간은 우연히 이 세계에 내 던져진 채 스스로를 만들어 가는 존재라고 보았다.

사르트르는 이 세계의 모든 존재를 ‘의식’의 유무를 기준으로 의식이 없는 ‘사물 존재’와 의식이 있는 ‘인간 존재’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사물 존재’를 ‘즉자 존재(Being in itself)’로, 인간 존재를 ‘대자 존재(Being for itself)’로 각각 명명하였다. 여기서 즉자 존재는 일상의 사물들처럼 자기의식이 없기 때문에, 그 자리에 계속 그것인 상태로 남아 있다. 반면에 대자 존재는 자기의식을 가진 존재이다. 따라서 자기 자신을 대상화하여 스스로를 바라볼 수도 있고, 매 순간 자유로운 선택을 통해 자신을 만들어 갈 수도 있다.

또한 사르트르는 인간의 자유로운 선택이 타자와 연관된다고 여겼다. 왜냐하면 내가 주체적 의식을 지니고 살아가듯이 타자도 주체적 의식을 지니고 있어서, 내가 아무리 주체성을 지닌 존재라 하더라도 나를 바라보는 다른 사람은 나를 즉자 존재처럼 객체화하여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르트르는 타인의 시선으로 규정되는 인간의 모습을 일컬어 ‘대타 존재(Being for others)’라고 명명하였다.

그러나 사르트르는 이렇게 자신이 타자의 시선에 노출되더라도 자신의 행위를 계속해 나가야 한다고 말한다. 자신의 선택에 따라 행동하며 그것을 타자가 받아들이도록 함으로써 타자를 자신의 선택 속에 끌어들이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인간은 참된 자아를 찾기 위해 타자의 시선을 두려워하거나 피할 것이 아니라 이를 극복하고 계속 자신의 행위를 선택하며 살아가야 한다.

[사]

사상 최대의 폭설로 완전히 마비되었던 도로와 거리가 경찰과 군부대, 시민들의 도움으로 조금씩 숨통을 터가고 있습니다. (중략)

평소 걸음으로 십 분이면 왔을 곳을 한 시간이 지나서야 도착했다. 익숙하지 않은 노동에 남자는 금세 지쳤다. 집에서 회사까지는 대중교통으로 한 시간 남짓 걸리는 거리였다. 이런 속도로 언제쯤 회사에 도착할 수 있을지 가늠하기도 어려웠다. 몸을 움직이면서 흘린 땀 때문에 셔츠가, 허리까지 쌓인 눈 때문에 구두와 바지, 속옷이 다 젖었다. 남자의 숨은 점점 느려졌고 눈이 쌓인 길은 끝이 없어 보였다. (중략)

전화벨은 기막힌 타이밍에 울렸다. 발신 번호를 확인한 남자가 인상을 확 구겼다.

“네, 부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제가 먼저 안부 전화를 드렸어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김 대리, 내가 지금 그런 인사 받자고 전화했는지 알아? 너 지금 어디야? 우리 사업부에서 너만 출근 안 했어.”

“네? …… 아, 지금 가는 중입니다. 눈 때문에 현관문이 안 열려서…….”

“야, 너 사는 데만 눈 왔냐? 지금 세상천지가 눈이야. 이 새끼가 빠져가지고. 며칠 시간을 쬔으면 미리미리 눈도 치워 놓고 출근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넌 그러니까 안되는 거야. 새끼가 눈치도 없지, 근성도 없지, 네 나이에 대리 달고 있는 거 쪽팔리지도 않냐? 새해부터는 잘해 보겠다며. 이 새끼는 맨날 술 마실 때만 열심히 한다 그러지. 회사가 우습냐? 먹고사는 게 우스워?”

부장은 속사포처럼 퍼부어 댔다. 아닙니다, 무섭습니다……라는 말 대신 남자의 입에서 흘러나온 건 거의 다 왔으며 무조건 빨리 가겠다는 거짓말이었다. 삼으로 눈이 아니라 머릿속을 퍼낸 것처럼 정신이 없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남자는 시간을 확인했다. 부장이 제시한 데드라인까지는 두 시간 정도 남아 있었다. (중략)

빨리 안 오고 뭐해. 과장의 문자가 도착했다. 어느새 두 시였다. 남자는 삼을 쥐고 기계적으로 움직였다. 눈을 치우는 속도가 점점 빨라졌다. 하지만 그만큼 빨리 지쳤다. 눈 속에 앉아서 쉬고 있으면 드러누워서 눈을 붙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졌다. 그 순간에는 눈이 딱딱하고 차갑게 느껴지지 않고 그저 공원에 있는 나무 벤치 같았다. 심지어 숨이불처럼 포근하게 느껴져서 안으로 한없이 파고들어 가고 싶어지기까지 했다. 남자는 쭈그리고 앉아서 꾸벅꾸벅 졸다가 한기 때문에 경기가듯 깨어났다. (중략)

맞은편에 불 꺼진 편의점이 있었다. 편의점 간판을 보자 온장고에 든 따뜻한 캔 커피가 마시고 싶어졌다. 얼마 전까지 일상이었던 것들이 지금은 손이 닿지 않는 저 눈 밑에 파묻혀 버렸다. 누가 만들어 놓았는지 편의점 앞에는 남자의 키만 한 눈사람이 서 있었다. 동그란 눈과 웃는 입 모양을 한 눈사람이었다. 그 웃는 얼굴을 보고 남자는 잠시 멈춰 섰다. 눈이 재앙이 되고 눈 때문에 일상이 무너진 곳에 서 있는, 웃는 얼굴의 눈사람은 김새는 농담 같았다. 남자는 자기도 모르게 그 입 모양을 흉내 냈다. 말라붙어 있던 입술이 툭 터져서 피가 찰끔 새어나왔다.

한참 속도를 내고 있는데 삼 끝에 딱딱한 게 또 걸렸다. 시간은 촉박하고 마음은 급한데 발로 눌러도 삼날이 더 이상 들어가지 않았다. 남자는 일 미터쯤 떨어진 곳에 다시 삼을 꽂았다. 한 삼 떠내고 나자 또 삼이 들어가지 않았다. 생활정보지함이나 자전거가 쓰러진 게 아니라 공통이라도 묻혀 있는 것 같았다. (중략)

해가 기울고 주위는 어느새 어둑어둑해졌다. 이대로 한 시간 정도만 파고 가면 회사에 도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남자는 회사 쪽을 쳐다보았다. 그리고 자신이 파고 온 길을 돌아보았다. 앞으로 나아가기에도 다시 돌아가기에도 만만치 않은 거리였다. 게다가 남자는 너무 지쳐 있었다.

[문항 3]

(1) 제시문 [마]의 ‘진정한 나’와 제시문 [바]의 ‘참된 자아’에 이르는 길의 차이에 대해 논하시오. [20점]

(2) 제시문 [바]의 사르트르의 존재에 대한 설명을 바탕으로 제시문 [사]의 ‘남자’가 처한 상황에 대해 서술하시오. [20점]

■ 예시 답안

(1)

제시문 [마]는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한 노력을 보여주고 있다. ‘나’가 맺을 수 있는 기본적인 관계는 ‘나’와 ‘그것’, ‘나’와 ‘너’의 둘뿐인데, ‘나’와 ‘그것’의 관계는 주체와 객체의 차등 관계인 반면, ‘나’와 ‘너’의 관계는 주체와 주체의 동격 관계이다. 이에 근거해 볼 때, 객체로서의 ‘인간’을 이해하는 것과 주체로서의 ‘나’를 이해하는 일은 같을 수 없으며, 진정한 ‘나’에 이르려면 ‘나’와 대등하며 유일한 존재인 ‘너’와의 관계를 맺어야만 한다.

제시문 [바]에서 사르트르는 이 세상의 모든 존재를 의식을 가지지 않는 사물 존재인 ‘즉자 존재’, 그리고 자기의식을 가지는 인간 존재인 ‘대자 존재’로 구분하고, 의식을 가진 인간이라고 하더라도 타인의 시선으로 규정되는 인간을 ‘대타 존재’로 다시 명명하였다. 이때 참된 자아를 찾기 위해 인간은 타자의 시선을 두려워하거나 피하는 대신 이를 극복하고 자신의 행위를 선택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볼 때, 제시문 [마]와 [바]는 ‘너’ 또는 ‘타자’에 대한 의미 부여에 차이를 보인다. 제시문 [마]의 ‘진정한 나’에 이르기 위해서는 ‘너’라는 타자가 반드시 필요하고 그의 반응이 필수적인 반면, 제시문 [바]의 시각에서 볼 때 타자의 시선과 반응에 좌우되는 대타 존재에 머물지 말고 타자의 시선을 극복하며 자유로운 선택을 통해 자신을 만들어갈 때 비로소 ‘참된 자아’에 이를 수 있다.

(2)

제시문 [바]의 사르트르는 세계의 모든 존재를 의식의 유무에 따라 ‘사물 존재’와 ‘인간 존재’로 구분하고, 사물 존재를 ‘즉자 존재’, 인간 존재를 ‘대자 존재’로 명명하였다. 그는 즉자 존재는 자기의식이 없기 때문에 그것인 상태로 남아 있다면, 대자 존재는 자기의식을 지니기에 자기 자신을 대상화하여 바라볼 수도 있고, 자유로운 선택을 통해 자신을 만들어 갈 수 있다고 말하였다. 또한 그는 인간 존재는 주체성을 지닌 대자 존재이면서 타인의 시선으로 규정되는 대타 존재이기도 하다고 설명하며, 인간은 참된 자아를 찾기 위해 타자의 시선을 두려워하거나 피할 것이 아니라 이를 극복하고 자신의 행위를 선택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제시문 [사]의 ‘남자’는 사상 최대의 폭설로 회사에 갈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회사 상사들의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추위와 피로에 지쳤음에도 샴으로 눈을 파헤치며 회사로 향하고 있다. 이때 남자는 부장과 과장의 시선에 의해 회사 내 무능한 직원으로 규정되는 대타 존재라고 할 수 있으며, 출근을 위해 기계처럼 샴질을 하는 그의 모습은 그가 회사 내 부품으로 객체화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또한 그는 편의점 앞에 서 있는 눈사람의 웃는 입 모양을 자기도 모르게 흉내 내고 있는데, 이는 즉자 존재처럼 취급되고 있는 남자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폭설과 상관없이 웃고 있는 눈사람의 모습은 재앙 같은 폭설 속에서도 회사에 출근하기 위해 기계적인 샴질을 하는 남자의 모습과 겹쳐지고 있는 것이다. 결국, 극심한 경쟁 속에서 인간이 사물화되는 현상은 사르트르가 말한 대자 존재로서의 인간이 즉자 존재, 즉 비인간화됨을 보여주고 있다. 사르트르는 인간이 참된 자아를 찾기 위해서는 타자의 시선을 극복하고 자유로운 선택을 통해 자신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이 소설 속 남자는 자신을 몰라피는 현대사회에 저항하지 못하고 무비판적으로 순응하는 모습을 보인다. 정리하면, 이 소설은 폭설이라는 재앙적 상황에서 사물화되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인간을 소외시키는 폭력적 현대 문명을 비판적으로 조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3-(1)	제시문 [마]의 진정한 ‘나’에 이르는 길 파악 - 아래 구절들을 포함하여 진정한 ‘나’에 이르는 길을 설명함 [예] ‘나’와 ‘너’의 관계, 주체와 주체의 관계, 동격 관계, ‘너’가 될 수 있는 다른 사람, ‘나’에게 반응을 보이는 존재 등	5점
	제시문 [바]의 ‘참된 자아’에 이르는 길 파악 - 사르트르가 언급한 ‘즉자 존재’, ‘대자 존재’, ‘대타 존재’에 관한 내용을 정확히 이해한 내용	5점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 참된 자아를 찾기 위해 타자의 시선을 극복하고 자신의 행위를 선택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함.	
	제시문 [마]의 ‘진정한 나’와 제시문 [바]의 ‘참된 자아’에 이르는 길의 차이 서술 - 제시문 [마]에서 진정한 ‘나’에게 이르기 위해 타자와의 관계를 필수적인 것으로 본 반면, 제시문 [바]에서 ‘참된 자아’에 이르기 위해서는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겪게 되는 타인의 시선을 극복하고 자신의 자유로운 선택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는 내용 - ‘진정한 나’에 이르는 길에 대해 제시문 [마]의 “‘너’를 통해”, ‘참된 자아’에 이르는 길에 대해 제시문 [바]의 “‘자신의 선택’을 통해”라는 내용을 근거로 서술	5점
	형식의 완결성 - 답안 서술 구조의 완결성, 어휘 및 문장 전체의 표현력, 분량 배분	5점
3-(2)	제시문 [바]의 내용 이해 - 사르트르 실존주의의 ‘즉자 존재’, ‘대자 존재’, ‘대타 존재’ 개념을 이해함. - 사르트르가 주장한 주체적 존재의 태도를 이해함.	5점
	제시문 [바]의 사르트르의 관점을 [사]에 적용하여 분석하여 주제를 파악 - ‘남자’는 회사 상사들에 의해 무능한 직원이라는 ‘대타 존재’로 객체화되고 있음. - ‘남자’가 회사에 출근하기 위해 기계적으로 샅으로 눈을 파는 모습, 눈사람의 웃는 모습을 흉내 내는 모습에서 ‘대자 존재’에서 ‘즉자 존재’처럼 기계화되고 있음. - 남자는 경쟁 사회에서 기계적인 노동을 하며 무비판적으로 살아가는 현대인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음. - 소설은 인간을 부품처럼 비인간적 존재로 전락시키는 현대 문명 사회를 비판함.	10점
	형식의 완결성 - 답안 서술 구조의 완결성, 어휘 및 문장 전체의 표현력, 분량 배분	5점

인문 II · 문항 1

[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사람은 자기를 고양하여 앞서 경험한 실망과 좌절을 극복하려 하는데, 이 경우 비교적 쉽게 고양시킬 수 있는 것은 물질 자기이다. 자신을 빛나게 해 주는 물건을 소유하면 자신의 물질 자기는 올라가기 때문에 사람들은 소비를 통해 자신이 더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싶어 한다. 사회적 자기 또한 마찬가지이다. 다른 사람에게는 없는 무언가를 손에 넣게 되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는데, 이러한 인정은 스스로에게 더 나은 사람이라는 느낌을 주어 결국 스스로에 대해 내리는 평가인 자아 존중감이 상승한다. 그런데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자신이 가진 것을 외부에 보여 주어야 한다. 즉 과시를 통해 만족을 얻게 되는 것이다.

심리학에서는 인간을 기본적으로 지위 상승 욕구를 지니고 있는 동물로 본다.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의 상태에서 더 나아지기를 원하지, 더 나빠지기를 원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비싸고 희귀한 제품, 즉 ㉠명품 소비를 통해 지위 상승 욕구를 충족하려 한다. (중략)

한국은 대체로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어느 집단에 소속되어 있고 누구를 얼마나 아는지 우리 사회에서는 대단히 중요하다. 물론 관계주의 문화의 좋은 점이 적지 않다. 그러나 사실 한국의 관계주의에 대한 단점을 더 쉽게 떠올리는데, 가장 큰 이유는 관계의 힘이 클수록 개인의 자유 의지가 집단의 주된 흐름으로부터 분리되기 어렵다는 것에서 비롯된다. 즉 동조(同調)가 쉽게 일어난다는 것이다.

동조 행위는 소비 현장에서 극명하게 나타난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유행에 따른 소비이다. 무언가가 대중에게 많은 인기를 얻고 회자되기 시작하면 그것을 갖지 않은 사람은 유행에 뒤처진 것처럼 여겨지고, 유행하는 제품을 사고 나면 최소한 남들보다 뒤떨어지지 않았다는 안도감을 느끼게 된다. 그러나 문제는 이 유행이 지속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동조 소비가 만연하게 되면 소비자들은 스스로 내적 기준을 세우고 이에 따라 구매를 결정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낀다. 자신이 내린 판단에 대한 확신을 외부에서 얻게 되는 것이다.

[나]

포그의 세계 일주는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했다. 계획보다 이틀이나 빨리 인도 뭍바이에 도착한 것이다. 그러나 곧바로 첫 번째 위기에 처한다. 영국 신문에서는 인도 횡단 철도가 완전히 개통되었다고 보도했었는데, 실제로는 약 80km 구간에 철길이 놓여 있지 않았다.

일정을 지키기 위해 ㉡대체 교통수단을 찾던 포그와 파스파르투는 한 인도인에게 코끼리를 빌려 여정을 재촉하려 한다. 그러나 코끼리 주인은 시간당 40파운드라는 금액을 제시해도 꿈쩍도 하지 않는다. 그러자 포그는 1,000파운드를 주고 코끼리를 아예 사겠다고 제안한다. 포그 일행과 동행한 영국 육군 준장은 포그에게 신중히 고민하라고 충고한다. 포그는 이러한 충고에 대해 숙고한 뒤 자신에게 중요한 것은 2만 파운드를 건 내기이고, 내기에서 이기려면 코끼리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제값의 스무 배를 주고서라도 코끼리를 반드시 살 것이라고 대답한다. 내기 총상금을 고려할 때 코끼리 구매에 1,000파운드를 지불할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중략)

이를 경제학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면 ‘포그의 대체 교통수단에 대한 지불 용의 가격은 다른 일반 여행객들보다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말할 수 있다. 여기에서 지불 용의 가격이란 소비자가 상품 구입을 위해 지불 하겠다고 마음먹은 금액 중 가장 높은 가격을 말한다.

[다]

내가 합리주의라 할 때는 철학적인 이론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이성이나 합리주의를 논할 때는 오직 우리가 우리 자신의 실수와 오류에 대한 타인의 비판을 통해, 나아가 자기비판을 통해 학습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합리주의자는 한마디로 자신이 옳음을 증명하는 것보다 다른 이에게서 배우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다. 나아가 남의 의견을 무조건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에 대한 남의 비판을 흔쾌히 받아들이고 남의 생각을 신중히 비판함으로써 타인에게서 기꺼이 배울 의향이 있어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비판, 더 정확히 말하면 ‘비판적 논의’이다. (중략) 인간의 관념에 한해서는, 오직 비판적 논의만이 찌꺼기에서 낱알을 가려낼 수 있다. 한 가지 관념을 다각도에서 검토하고 타당한 판단을 내리는데 필요한 성숙함은 오직 비판적 논의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 (중략) 합리주의자는 비판적 논의의 근본이 되는 ‘주고 받기(give and take)’ 태도가 철저히 인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본다. 비판적 논의에 임하려면 이성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대해야 하기 때문이다.

[문항 1]

- (1) 위 ㉠과 ㉡의 소비에 대해 제시문 [나]의 ‘지불 용의 가격’ 측면에서 논하시오. [20점]
- (2) 제시문 [다]의 관점에서 제시문 [가]의 동조 행위와 제시문 [나]의 코끼리 구매 행위를 평가하시오. [20점]

■ 예시 답안

(1)

제시문 [가]의 명품과 제시문 [나]의 대체 교통수단은 모두 상황에 따라 일부 소비자들이 아주 높은 지불 용의 가격을 상정한 상품이다. 제시문 [가]의 명품 구매에 대한 지불 용의 가격이 일부 소비자들에게 높은 이유는 이들이 명품을 외부에 과시함으로써 지위 상승 욕구를 충족하려 하기 때문이다. 즉, 물질 자기와 사회적 자기를 높여 자아 존중감을 높이하고자 하는 이들은 높은 가격을 지불하면서 명품을 소비하려 할 가능성이 크다. 반면, 제시문 [나]에서 포그의 대체 교통수단에 대한 지불 용의 가격이 높았던 이유는 내기 상금을 고려할 때 대체 교통수단의 경제적 투자 가치가 높았기 때문이다. 높은 수익 창출을 위해 대체 교통수단의 필요성이 강했기 때문에 포그는 시장가보다 훨씬 높은 가격을 지불하면서까지 대체 교통수단을 소비하였다.

(2)

제시문 [다]의 저자는 비판적 논의를 통한 학습을 강조한다. 즉, 다른 사람의 생각을 비판적으로 판단하여 이를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합리주의적 태도에서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러한 비판적 논의는 나와 타인 간의 ‘주고 받기’에 기반하여 이루어진다고 본다. 이러한 제시문 [다]의 입장에서 제시문 [가]의 동조 행위는 합리주의적 태도라 할 수 없다. 제시문 [가]의 동조 행위는 자신이 내린 판단에 대한 확신을 외부에서 찾으며, 무비판적으로 타인의 의견을 수용한다. 반면 제시문 [나]에서 포그는 동행한 영국 육군 준장의 조언을 경청하여 숙고한 뒤 내기에서의 승리를 위해 과감하게 코끼리를 구입하기로 결정한다. 물론 포그는 시장가보다 상당히 높은 가격으로 코끼리를 구입하였다. 하지만 이는 제시문 [다]의 저자가 언급한 비판적 논의에 따라 결정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제시문 [다]의 저자는 제시문 [가]의 동조 행위에 비해 제시문 [나]에 나타난 포그의 코끼리 구매를 상대적으로 합리주의적 태도에 가깝다고 평가할 것이다.

■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1-(1)	제시문 [가]의 ‘명품’ 소비를 ‘지불 용의 가격’ 측면에서 적절하게 논의 - 지위 상승 욕구를 충족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은 명품에 대한 지불 용의 가격을 높이 책정할 가능성이 크다. - 그러므로 물질 자기와 사회적 자기를 높여 자아 존중감을 높이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높은 가격을 지불하면서도 명품을 소비하려 할 것이다.	7점
	제시문 [나]의 ‘대체 교통수단’ 소비를 ‘지불 용의 가격’ 측면에서 적절하게 논의 - 내기에서 승리할 때 2만 파운드라는 큰 금액을 받을 수 있는 포그는 승리를 위한 수단으로의 대체 교통수단 소비에 상당한 비용을 지불할 용의를 가졌다. - 그렇기 때문에 포그는 시장가보다 높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투자 차원에서 대체 교통수단을 소비하였다.	7점
	형식의 완결성 - 답안 서술 구조의 완결성, 어휘 및 문장 전체의 표현력, 분량 배분	6점
1-(2)	제시문 [가]의 동조 행위를 합리주의적 태도와 관련하여 적절하게 평가 - 동조 행위는 자신의 판단에 대한 확신을 일방적으로 외부에서 찾는다. 그러므로 타인의 의견에 대한 비판적 논의가 부재하다. - 동조 행위는 무비판적으로 타인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것이므로 합리주의적 태도라 말하기 힘들다.	7점
	제시문 [나]의 코끼리 구매 행위를 합리주의적 태도와 관련하여 적절하게 평가 - 포그는 영국 육군 준장의 의견을 숙고한 뒤, 자신에게 가장 적당한 선택이 무엇인지를 판단하였다. - 제시문 [가]의 동조 행위에 비해 타인의 의견에 대한 비판적 논의를 수행하였다. 그러므로 상대적으로 합리주의적 태도를 보였다고 할 수 있다.	7점
	형식의 완결성 - 답안 서술 구조의 완결성, 어휘 및 문장 전체의 표현력, 분량 배분	6점

인문 II · 문항 2

※ [1~2] 공통 제시문 중 [가]~[다]는 앞 문항(인문 II · 문항 1)을 참고하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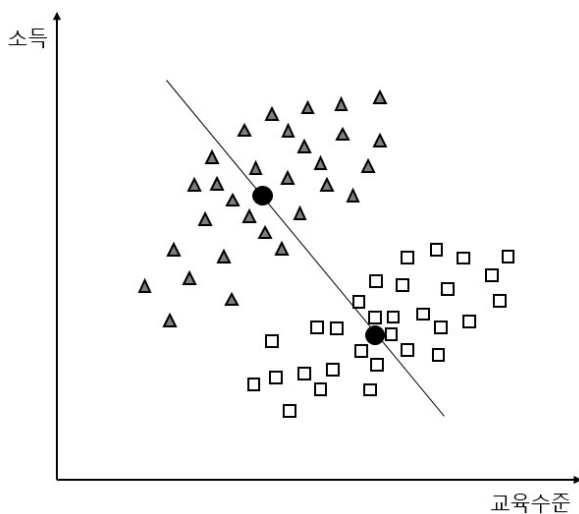
[라]

최근 데이터 사이언스, 빅 데이터 같은 말들이 유행이다. 기술의 발달, 특별히 컴퓨터 네트워크와 통신 기술의 발달을 통해서 이전에는 불가능했던 분석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중략) 그러나 지식은 힘이 되 얇은 지식은 독일 수 있듯이, 데이터 사이언스는 좋은 것일 수 있지만 어설픈 데이터 사이언스는 잘못된 해석을 가져다 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앨 고어와 조지 W. 부시가 맞붙었던 2000년 대선에서 미국은 일명 레드 스테이트(공화당을 지지한 주)와 블루 스테이트(민주당을 지지한 주)로 나뉜 것처럼 보였다. 흥미로운 사실은 선거 결과 민주당을 지지한 주 가운데 경제적으로 풍요한 주가 상당수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주가 미국에서 가장 부유한 주 중에 하나인 캘리포니아다. 반대로 미국 중부와 남부의 경제적으로 어려운 주 중에서 공화당을 지지한 주가 많았다. 그렇다면 이를 근거로 부자들이 민주당을 지지했고, 가난한 사람들이 공화당을 지지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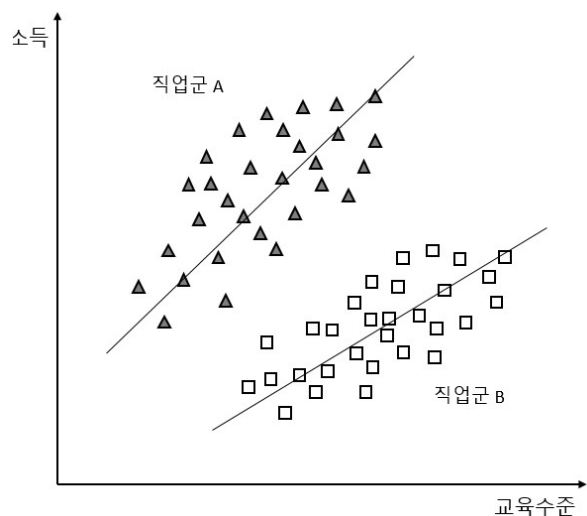
컬럼비아대학의 통계학자이자 정치학자인 앤드루 겔만을 비롯한 여러 학자가 지적했듯이 이는 대표적인 생태학적 오류의 사례이다. 미국의 대선 결과 분석에서 우리가 추론하고자 하는 분석의 기준은 개인이다. 개인의 경제적인 조건에 따라서 투표 패턴이 바뀌는지가 궁금하다. 그러나 위 논의에서 따지고 있는 경제적 조건은 개인의 경제적인 조건이 아니라, 각 주의 경제적 조건이다. 만약 주별로 개인의 소득과 투표 성향의 관계를 분석했다면, 주의 평균소득과 평균 투표 성향 간 관계와는 다른 결과가 나왔을 수 있다.

[마]

생태학적 오류(ecological fallacy)란 개인 수준의 관계를 해석할 때 집단 수준에서 도출된 관계를 이용함으로써 범하게 되는 오류이다. 여기서 ‘생태’란 개인보다 큰 단위로서 집단이나 체제 등을 지칭하는 말이다. 생태학적 오류를 보여 주기 위한 간단한 예로서, 한 연구자가 개인의 교육수준과 소득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한다고 가정하자. 연구자는 두 직업군(각 30명)에서 일하고 있는 60명의 직장인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평생 받은 교육의 수준과 현재의 소득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였다. [그림 a]와 [그림 b]는 동일한 자료에 나타나는 다른 관계의 산포도를 제공하고 있다. [그림 a]는 전체 집단의 교육수준과 소득 간 산포도를 보여 주고 있으며(그림에 있는 두 개의 굵은 점은 각 집단의 교육수준 평균과 소득 평균이 만나는 점), [그림 b]는 직업군별 교육수준과 소득 간 산포도를 보여 주고 있다. 두 그림에서 산포도 위에 표시된 직선은 교육수준과 소득 간 관계의 방향성을 나타낸다.



[그림 a] 교육수준과 소득의 전체 집단 관계



[그림 b] 교육수준과 소득의 직업군별 관계

[문항 2] 제시문 [라]에 제공된 생태학적 오류의 사례를 참고하여 [그림 a]와 [그림 b]가 보여 주는 변수 간의 관계를 각각 설명하시오. 또한 제시문 [마]의 두 그림 중 연구자의 목적에 부합하는 그림을 선택하고, 그 이유를 밝히시오. [30점]

■ 예시 답안

제시문 [라]에 제시된 생태학적 오류는, 미국의 대선 결과에서 개인의 소득수준과 정치 성향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으나, 주(state)의 소득 평균과 정당지지도를 이용한 오류이다. 우리가 추론하고자 하는 분석의 기준이 개인이라면, 개인의 경제적 조건과 투표 패턴을 분석해야 한다. 주의 경제적 조건과 주의 투표 패턴을 이용하여 얻은 결과를 개인에게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림 a를 보면, 전체적으로 교육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소득이 감소하는 패턴이 있다. 이는 각 집단의 평균점을 이용하여 그은 선의 방향과 일치한다. 즉, 각 직업군의 교육수준 평균과 소득 평균을 이용하여 교육수준과 소득의 관계를 보여준다. 반면 그림 b는 각 직업 집단별로 개인의 교육수준과 소득의 관계를 보여 주고 있다. 각 집단 내에서 직장인들은 교육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소득도 증가하는 패턴을 보여주며, 이는 집단의 평균들을 이용하여 분석한 패턴과 다르다.

개인적 관계란 개인을 분석의 단위로 해서 보는 개인들의 두 속성(또는 변수) 간의 관계를 말한다. 만일 이러한 개인들이 집단으로 묶이고, 집단 수준에서 특정한 관계를 찾아낸다면, 그 결과는 단위로서 집단을 사용한 생태학적(집단적) 관계이다. 개인 수준에서 교육수준과 소득의 관계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제시문 [마]의 두 그림 중 b를 선택해서 해석해야 한다. 생태학적(집단적) 관계는 개인적 관계와 아무런 관련이 없을 수도 있고, 심지어 그것은 그림 a와 b처럼 정반대의 관계를 보여줄 수도 있기 때문이다.

■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2	제시문 [라]의 생태학적 오류의 예제를 간략하게 정리 -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개인의 소득과 투표성향의 관계 - 그림에도 불구하고 주(state)의 평균소득과 투표성향의 관계를 이용하여 개인 수준의 소득과 투표성향의 관계를 설명하려고 했음 - 이와 같은 문제를 생태학적 오류라고 함	5점
	제시문 [마]에 제공된 그림 a와 b가 어떤 수준에서 교육수준과 소득 간의 관계를 보여 주고 있는지 각각 설명 - 그림 a는 자료 전체를 이용하여 두 변수의 관계를 보여 주고 있는데 이것은 결국 집단 수준의 평균점들을 이용하여 파악하는 두 변수의 관계와 동일함 - 그림 b는 전체 자료를 각 집단으로 나누어 분석하였고, 각 집단 내에서 개인의 교육수준과 소득 간 관계를 보여 주고 있음	10점
	연구자가 개인의 교육수준과 소득 간의 관계에 관심이 있다면 어떤 그림을 선택해야 하는지 이유 설명 - 그림 a는 집단 수준에서의 교육수준과 소득 간의 관계를 보여 주고 있으므로 연구자의 목적에 맞는 그림 b를 선택하여 해석해야 함 - 개인의 교육수준과 소득 간의 관계에 관심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개인을 집단으로 묶어 집단 수준에서 특정한 관계를 찾아낸다면, 전혀 예측치 못한 반대의 결과를 얻을 수도 있음	10점
	형식의 완결성 - 답안 서술 구조의 완결성, 어휘 및 문장 전체의 표현력, 분량 배분	5점

인문 II · 문항 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30점]

[I]

물가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들의 가격을 종합하여 평균한 가격 수준을 의미한다. 물가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서 물가지수를 산출하는데, 물가지수를 이용하면 두 시점 간의 물가 변화, 즉 물가상승률을 측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2015년의 물가지수가 100이고 2016년의 물가지수가 105이면, 2016년 1년 간의 물가상승률은 5%이다. 물가가 오르면 같은 액수의 돈을 가졌더라도 장바구니에 담을 수 있는 상품의 양이 적어진다. 이처럼 물가상승률을 이용하면 화폐의 구매력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측정할 수 있다.

대표적인 물가지수인 소비자물가지수는 소비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구입하는 대표적인 상품들의 기준년 대비 비교년 물가 비율의 가중 평균을 나타내는 지수이다. N 개의 대표 상품들이 있고, 기준년이 2020년인 경우, t 년도의 소비자물가지수는 $\sum_{i=1}^N \left(W_i^{2020} \times \frac{P_i^t}{P_i^{2020}} \right) \times 100$ 이다. 여기에서 각 상품의 가중치 W_i^{2020} 은 기준년 2020년에 소비자들이 상품 i 에 지출한 금액이 총지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며, P_i^t 는 상품 i 의 t 년도 가격이고, P_i^{2020} 은 상품 i 의 2020년도 가격이다. 산식으로부터 기준년인 2020년의 소비자물가지수는 100이 됨을 알 수 있다. 한편, t 년도의 물가상승률(%)은 다음과 같다.

$$t\text{년도 물가상승률}(\%) = \left[\frac{t\text{년도 소비자물가지수} - (t-1)\text{년도 소비자물가지수}}{(t-1)\text{년도 소비자물가지수}} \right] \times 100$$

[II]

이자율은 물가 변동을 고려하는지에 따라 명목 이자율과 실질 이자율로 구분할 수 있다. 물가 변동을 고려하지 않은 이자율을 명목 이자율이라고 하며, 물가 변동을 고려한 이자율을 실질 이자율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지금 100만 원을 가진 사람이 있다고 하자. 이 사람은 가격이 100만 원인 상품을 살 수도 있고, 명목 이자율 3%의 1년 만기 예금을 선택할 수도 있다. 예금을 선택한 경우 1년 후에 받는 원금과 이자의 합은 103만 원이다. 만약 1년 후 해당 상품의 가격이 100만 원으로 일정하다면, 예금으로 얻게 된 금액으로 그 상품을 한 단위 사고도 3만 원이 남게 된다. 이는 예금에 투자되었던 100만 원의 구매력이 1년 후에 더 커진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만약 그 상품의 가격이 1년 후에 105만 원이 되었다면 예금으로 얻게 된 103만 원으로는 해당 상품을 살 수 없게 된다. 이 경우에는 예금에 투자되었던 100만 원의 구매력이 1년 후에 더 작아진 것이다.

따라서 가계가 예금에 투자하는 경우에 궁극적으로 관심을 두어야 하는 것은 명목 이자율에서 예상 물가상승률을 뺀 예상되는 실질 이자율이 되어야 한다. 예상되는 실질 이자율로 얻어지는 수입이 우리가 예금에서 기대할 수 있는 실질적인 이익이기 때문이다.

- (1) A국과 B국에서 국민들이 소비하는 상품은 쌀과 소고기뿐이고, A국과 B국 간에는 무역 및 노동 이동이 없다고 가정한다. 상품 가격 및 상품별 지출 비중은 아래의 표와 같다. 두 국가의 화폐 단위는 각각 α 와 β 이다. 2020년을 기준으로 하여 2021년 두 국가의 소비자물가지수를 각각 구하시오. [12점]

A국과 B국의 상품 가격 및 상품별 지출 비중

A국	쌀	소고기	B국	쌀	소고기
2020년 가격	100α	$1,000\alpha$	2020년 가격	100β	$1,000\beta$
2021년 가격	102α	$1,030\alpha$	2021년 가격	130β	$1,200\beta$
2020년 지출 비중(단위: %)	60%	40%	2020년 지출 비중(단위: %)	40%	60%

- (2) 두 국가의 2021년 물가상승률을 구하고, 두 국가의 화폐의 구매력 변화를 비교하시오. [8점]

- (3) A국의 2022년 물가상승률이 앞서 구한 2021년 물가상승률과 동일하게 될 확률은 0.5이고, 2.6%가 될 확률은 0.5이다. 반면 B국의 경우, 2022년의 물가상승률이 앞서 구한 2021년 물가상승률과 동일하게 될 확률은 0.5이고, 25%가 될 확률은 0.5이다. A국의 1년 만기 명목 이자율 5% 예금과 B국의 1년 만기 명목 이자율 26% 예금 중에서 이익이 되는 쪽을 선택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단, A국과 B국 간의 환율은 일정하고, 예금과 관련된 다른 추가 비용 및 예금 이외의 다른 투자 방식은 없으며, 2022년 물가상승률 이외에 다른 불확실성은 없다고 가정한다.) [10점]

■ 예시 답안

문항 3-(1)

- ▶ 2021년 소비자물가지수
 - A국: $[0.6 \times (102/100) + 0.4 \times (1030/1000)] \times 100 = 102.4$
 - B국: $[0.4 \times (130/100) + 0.6 \times (1200/1000)] \times 100 = 124$

문항 3-(2)

- ▶ 2021년 소비자물가상승률
 - A국은 소비자물가지수가 100에서 102.4로 증가하여 물가상승률은 2.4%가 됨.
 - B국은 소비자물가지수가 100에서 124로 증가하여 물가상승률은 24%가 됨.
- ▶ 2021년 구매력 변화 비교
 - A국: 2020년에 100으로 구입할 수 있었던 소비자물가지수 구성 상품(바구니)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2021년에는 102.4가 필요하다. 즉, 전년과 동일한 상품 묶음을 사기 위해서는 2021년에 2.4가 더 필요한 상황이 되었다. 이는 A국 화폐의 구매력이 2.4% 줄어든 것을 의미한다.
 - B국: 2020년에 100으로 구입할 수 있었던 소비자물가지수 구성 상품(바구니)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2021년에는 124가 필요하다. 즉, 전년과 동일한 재화 묶음을 사기 위해서는 2021년에 24가 더 필요한 상황이 되었다. 이는 B국 화폐의 구매력이 24% 줄어든 것을 의미한다.
 - 따라서, 구매력의 측면에서 2021년의 B국 화폐(β)의 구매력은 전년에 비하여 24% 줄어들어 2.4%가 줄어든 A국 화폐(α)보다 훨씬 크게 감소하였다. 이는 B국의 화폐 가치가 A국에 비하여 훨씬 크게 떨어졌음을 의미한다.

문항 3-(3)

- A국의 2022년 예상 물가 상승률 = $0.5 \times 2.4\% + 0.5 \times 2.6\% = 2.5\%$.
- B국의 2022년 예상 물가 상승률 = $0.5 \times 24\% + 0.5 \times 25\% = 24.5\%$.
- A국에서 기대되는 실질 이자율 = $5\% - 2.5\% = 2.5\%$.
- B국에서 기대되는 실질 이자율 = $26\% - 24.5\% = 1.5\%$.
- 따라서, A국에 예금할 때 기대되는 실질 이자율은 2.5%로 B국에 예금할 때 기대되는 실질 이자율 1.5%보다 1.0%p 더 높다. 따라서 예금으로부터 기대하는 수익률이라 할 수 있는 예상 실질 이자율이 더 높은 A국에 명목 이자율 5%로 예금한다.

■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3-(1)	A국의 소비자물가지수 산출 (6점) B국의 소비자물가지수 산출 (6점)	12점
3-(2)	A국의 물가상승률 산출 (2점) B국의 물가상승률 산출 (2점) 물가상승률을 이용한 두 국가의 구매력 비교 (4점)	8점
3-(3)	두 국가의 예상 물가상승률 계산 (4점) 두 국가의 실질 이자율 계산 (4점) 실질 이자율 비교를 통한 투자 결정 (2점)	10점

써봄

기출로 연습했다면, 이제 써보고 바로 첨삭받자.

Google Gemini 기반 한국어 논술 자동 첨삭 서비스

01

4개 영역 점수

논리구조 · 근거타당성 · 주장명확성 · 언어표현 영역별로 점수를 매겨 줍니다.

02

상세 피드백

강점, 개선점, 구체적인 제안사항까지 한 번에 확인합니다.

03

일괄 첨삭

교사·강사는 학생 답안을 최대 10편까지 한꺼번에 올려 처리할 수 있습니다.

04

간편한 업로드

PDF · DOCX · TXT 파일을 그대로 올리면 됩니다.

이용 안내

무료 체험	회원가입 시 3회 무료 분석
개인 플랜	월 9,900원
교사 플랜	월 29,900원

논술 수험생 · 논술 교사와 강사 · 학원과 교육기관



writegrow.net

QR 코드를 스캔하면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